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를 활용한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정체성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Four Districts(Gu)  
Using Survey on Lifestyle and Regional Identity of Suwon Residents

2015

---

## 연구진

연구책임

● 최지연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홍은영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연구원

● 심희경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 약

본 연구는 2014/15년 기획연구로 시행된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의 후속연구로 수원시민들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을 구별로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생활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수원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에 의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정체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는 확인해보는 것은 그 동안 수원이라는 통합된 도시에 대한 시각을 분화된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좀 더 면밀하게 수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은 크게 3영역으로 사회 문화적 특성 부문, 삶의 질 부문, 지역 정체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문화적 특성은 수원시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여가 및 소비, 계층의식으로 파악하였고, 삶의 질의 측면은 개인적 영역과 물리적 환경영역으로 분리하여, 수원시민의 현재 상태수준에 대한 만족도, 생활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직장생활만족도,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거주환경 만족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지역 정체성은 도시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와 도시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정주의식에 대한 파악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해본 결과, 장안구의 경우는 본인의 상태와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이 현저히 낮은 편인데, 특히 안전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선구의 경우는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거주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팔달구는 생활문화나 삶의 질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 정체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보다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불만족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통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 비해 많은 생활영역이나 삶의 질, 지역 정체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

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부문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문화 환경 여건에 대한 만족수준은 가장 높았다. 이는 상당히 모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영통구 내의 계층 차이가 반영된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지만, 이를 통해 실제로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접근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정책적 변화나 수원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의 측면들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시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 방법 .....	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	7
제1절 이론적 배경 .....	9
1. 지역 문화와 정체성 .....	9
2. 삶의 질과 도시생활 .....	12
3. 지역 정체성 .....	17
제3절 수원시 구별 현황 .....	21
1. 4개 구 개요 .....	21
2. 구별 현황 비교 .....	25
제3절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	46
1. 자료 수집 .....	46
2. 분석 자료 및 방법 .....	47
제3장 분석 결과 .....	53
제1절 사회문화적 특성 .....	55
1. 사회적 관계 .....	55
2. 여가 및 소비 .....	66
3. 계층의식 .....	82

제2절 삶의 질 .....	85
1. 개인 수준의 삶의 질 .....	85
2. 물리적 환경 만족도 .....	99
제3절 지역 정체성 .....	105
1. 도시이미지 인식 .....	105
2. 도시 자긍심 .....	107
3. 정주의식 .....	114
<b>제4장 결론 .....</b>	<b>117</b>
제1절 요약 .....	119
1. 사회문화적 특성 .....	119
2. 삶의 질 .....	122
3. 지역 정체성 .....	124
제2절 결론 .....	125
1. 장안구 .....	125
2. 권선구 .....	128
3. 팔달구 .....	130
4. 영통구 .....	135
제3절 정책적 제언 .....	137
<b>참고문헌 .....</b>	<b>141</b>
<b>부록</b>	
1.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	145

# 표 목 차

<표 2-1> 삶의 질 개념 정의 .....	13
<표 2-2> 삶의 질 지표 비교 .....	15
<표 2-3> 도시이미지 정의 .....	17
<표 2-4> 도시이미지 유형 .....	18
<표 2-5> 인구통계(2014년 12월 31일 기준) .....	25
<표 2-6> 연령별 인구수(2014년 12월 기준) .....	26
<표 2-7> 토지 현황(2015년 1월 1일 기준) .....	28
<표 2-8> 주택유형별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29
<표 2-9>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4년 12월 31일 기준) .....	30
<표 2-10> 도로 현황(2015년 1월 기준) .....	31
<표 2-11> 철도 현황(2015년 1월 기준) .....	32
<표 2-12> 차량 등록 현황(2015년 1월 기준) .....	33
<표 2-13> 주차장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34
<표 2-14> 식품위생 관련업소(요식업소) 현황(2014년 8월 기준) .....	36
<표 2-15> 시장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37
<표 2-16> 금융기관 분포(2015년 9월 30일 기준) .....	37
<표 2-17> 공원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38
<표 2-18> 문화시설(2015년 9월 30일 기준) .....	39
<표 2-19> 교육기관 현황(2014년 4월 1일 기준) .....	40
<표 2-20> 의료기관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41
<표 2-21> 의약품 판매업소(2015년 9월 30일 기준) .....	42
<표 2-22> 사회복지시설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43
<표 2-2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44
<표 2-24> 관공서 및 주요기관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	45
<표 2-2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6

<표 2-26> 사회문화적 특성 관련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	48
<표 2-27> 삶의 질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	50
<표 2-28> 도시 관련 변수 및 정주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	51
<표 3-1>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평균(표준편차) .....	56
<표 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이원 변량분석표 .....	57
<표 3-3> 이웃관계 분산분석 .....	59
<표 3-4> 부모님과 의 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	61
<표 3-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	63
<표 3-6>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	63
<표 3-7> 모임활동 만족도 분산분석 .....	65
<표 3-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표준편차) .....	67
<표 3-9>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이원 변량분석표 .....	67
<표 3-10> 여가활동 분산분석 .....	69
<표 3-11> 외식행태 관련 분산분석 .....	71
<표 3-12>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소비 평균(표준편차) ..	73
<표 3-1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소비 이원 변량분석표 ..	73
<표 3-14> 쇼핑 행태1_적극적 소비 분산분석 .....	76
<표 3-1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소비 평균(표준편차) ..	78
<표 3-16>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소비 이원 변량분석표 ..	78
<표 3-17> 쇼핑 행태2_습관적 소비 분산분석 .....	81
<표 3-18> 본인의 계층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	82
<표 3-19> 부모님의 계층에 대한 분산분석 .....	84
<표 3-20> 상태수준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	86
<표 3-21> 지역별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	89
<표 3-22>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	91
<표 3-2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	91
<표 3-24> 지역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	93
<표 3-25>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	95
<표 3-26>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	95

<표 3-27> 지역별 직장생활도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	98
<표 3-28> 지역별 공공서비스수준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	101
<표 3-29> 지역별 거주환경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	104
<표 3-30> 지역별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분산분석 .....	106
<표 3-31>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평균(표준편차) ..	108
<표 3-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이원 변량분석표 .....	108
<표 3-3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평균(표준편차) ..	110
<표 3-34>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이원 변량분석표 .....	110
<표 3-35> 지역별 도시 자긍심에 대한 분산분석 .....	113
<표 3-36> 지역별 정주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	116

# 그림 목 차

<그림 2-1> 인구변동 현황(2003~2015) .....	27
<그림 2-2> 세대당 승용차(비사업용) 대수 .....	33
<그림 2-3> 차량 1대당 주차면적 .....	35
<그림 2-4> 단위면적(1km <sup>2</sup> )당 평균 업체수 .....	36
<그림 2-5> 공원 대비 인구수 .....	38
<그림 3-1> 이웃관계 .....	55
<그림 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	57
<그림 3-3> 세부영역별 이웃관계 .....	58
<그림 3-4>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60
<그림 3-5> 세부영역별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61
<그림 3-6> 모임활동 만족도 .....	62
<그림 3-7>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	64
<그림 3-8> 세부영역별 모임활동 만족도 .....	65
<그림 3-9> 여가활동 .....	66
<그림 3-10>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	68
<그림 3-11> 세부영역별 여가활동 .....	69
<그림 3-12> 외식행태 .....	70
<그림 3-13> 세부영역별 외식행태 .....	71
<그림 3-14> 적극적 소비 .....	72
<그림 3-1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 소비 .....	74
<그림 3-16> 세부영역별 적극적 소비 .....	75
<그림 3-17> 습관적 소비 .....	77
<그림 3-18>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 소비 .....	79
<그림 3-19> 세부영역별 습관적 소비 .....	80
<그림 3-20> 본인의 계층의식 .....	82

<그림 3-21> 부모님 계층 .....	83
<그림 3-22> 세부영역별 부모님 계층 .....	84
<그림 3-23> 상태수준 만족 .....	85
<그림 3-24> 생활만족도 .....	87
<그림 3-25> 세부영역별 생활만족도 .....	88
<그림 3-26> 여가생활 만족도 .....	90
<그림 3-27>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	92
<그림 3-28> 세부영역별 여가생활 만족도 .....	93
<그림 3-29> 직장생활 만족도 .....	94
<그림 3-30>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	96
<그림 3-31> 세부영역별 직장생활 만족도 .....	97
<그림 3-32>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	99
<그림 3-33> 세부영역별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	100
<그림 3-34> 거주환경 만족도 .....	102
<그림 3-35> 세부영역별 거주환경 만족도 .....	103
<그림 3-36> 도시이미지 .....	105
<그림 3-37> 도시자긍심 .....	107
<그림 3-3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09
<그림 3-39>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11
<그림 3-40> 세부영역별 도시자긍심 .....	112
<그림 3-41> 정주의식 .....	114
<그림 3-42> 세부영역별 정주의식 .....	115
<그림 4-1> 사회적 관계 .....	119
<그림 4-2> 여가 및 소비 .....	120
<그림 4-3> 계층 의식 .....	121
<그림 4-4> 수원시 전체 삶의질 .....	122
<그림 4-5> 장안구 삶의질 .....	123
<그림 4-6> 권선구 삶의질 .....	123
<그림 4-7> 팔달구 삶의질 .....	123

<그림 4-8> 영통구 삶의 질 .....	123
<그림 4-9> 지역 정체성 .....	124
<그림 4-10>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 .....	127
<그림 4-11>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 .....	127
<그림 4-1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 ..	127
<그림 4-1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 ..	127
<그림 4-14>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	129
<그림 4-15>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	129
<그림 4-16>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	129
<그림 4-17>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	129
<그림 4-18>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이미지 .....	132
<그림 4-19>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이미지 .....	132
<그림 4-20>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이미지 .....	132
<그림 4-21>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이미지 .....	132
<그림 4-22>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33
<그림 4-23>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33
<그림 4-24>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33
<그림 4-2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	133
<그림 4-26>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	134
<그림 4-27>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	134
<그림 4-2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	134
<그림 4-29>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	134
<그림 4-30>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	136
<그림 4-31>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	136
<그림 4-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	136
<그림 4-3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	136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20만 명이 넘어서는 광역시급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 수원시를 동질적 성격의 구성체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시의 도시적 성장은 수원의 내적 분화를 발생시켰다. 도시적 확장이 진행되며 수원이 거대도시화하면서 수원 내부를 서로 다른 특질을 지닌 공간으로 분화시키고 상이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했다. 수원 내부의 소지역들이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의 내포적 심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의 주거공간은 도시개발 과정에 맞춰 각기 다르게 형성됨으로써 인적 구성이나 도시인프라, 편의시설 등 사회구조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물리적 환경의 차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서 충족되는 욕구를 기반으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다시 공간에 따라 지역민의 소비행태나 여가와 문화향유와 같은 문화적 특성은 물론 삶의 질이나 지역정체성 의식 등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공간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과 내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에 대한 연구는 단일체로서의 수원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내부적 차이들에 주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수행될 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원시민의 삶과 문화,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4/15년 기획연구로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위 조사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적 후속연구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다. 위 조사는 가족 및 사회생활, 생애과정과 일상생활, 정주의식, 소비활동, 여가와 문화생활, 경제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전반적인 수원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을 드러내주었다. 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내적 분화의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속연구를 통해 그러한 소지역간 차이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2014~15년 수행된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구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 조사는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만 19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이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위 자료에서 7점 척도로 제시된 문항에 한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사회적 관계, 여가 및 소비생활, 계층 의식, 개인 수준의 삶의 질, 물리적 환경 만족도, 도시이미지 인식, 도시 자긍심, 정주의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항목들은 여러 개의 세부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수준은 공간적 비교에 중점을 두었는데 공간적 구분은 행정구역인 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항목별로 구별 비교를 시행하였고 모든 항목을 종합하여 구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통계적 처리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 항목들의 개념과 의미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각 문항들을 변수화하여 SPSS를 활용한 통계적 처리를 실시하였다. 문화적 특성, 삶의 질, 도시 관련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별 비교를 위한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항목별 분석 결과들을 종합화하여 구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 제2장

#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수원시 구별 현황

제3절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지역 문화와 정체성

지역 정체성은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적 정체성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 장소와 공간적 맥락에 의해 제약받는 ‘영토적 사회화(territorial socialization)’의 결과로서 출생 혹은 성장 지역 등에서 그 지역의 지배적 규범과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집합적인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은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조명래, 1996)

지역 정체성은 공간적 경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문화를 ‘생활양식(a way of life)’이라 한다면, 지역 문화는 지역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조명래, 1996) 이런 의미에서 지역 문화는 예술양식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가치체계, 행동양식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을 통해 나타난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문화 또한 공동체적 성향을 갖는다. 지역 문화의 공동체적 속성은 지역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sup>1)</sup>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며 지역민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도 활발해지게 마련이다.

---

1) 이러한 성향을 ‘응집(cohesion)’이라 하는데, 지역사회의 응집 성향은 지역민의 지역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지역민이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 등을 오랜 기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적 응집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uckner, 1988; 이영원, 2013에서 재인용)

지역 정체성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한 지역성이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을 표출하며 지역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정 같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반영한다.

## 1) 지역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회구조와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의 기제로서, 사회참여와 상호교류 등의 준거틀로서,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전략으로서 경제적·정치적 자원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정신적 자원인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르크스적 자본 개념을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상징적 영역으로 확장시킨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면서 형성되는 연결망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기회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복합적인 실체로 정의한다. 하나는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의 특정 행위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유형의 자본처럼 사회적 자본도 특정 목적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본들과 달리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간의 관계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이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 등의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자본이 일종의 사회적 자원이며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는 신뢰, 규범, 참여성,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의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사회 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통해 형성(Lake & Huckfeldt, 1998: 581)되기에 지역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지역 정체성 모두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원(2013)은 지역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 정체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인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연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연계 요인은 지역 정체성 구성 요소인 지역 애정도나 지역사회 신뢰도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 2) 생활양식과 문화

생활공간은 경제력, 취향과 더불어 소비양식 분화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소비 양식의 차이는 경제적 생산관계 하에서 형성되는 지위 및 계급의 표식이기도 하고(Veblen, 1899), 취향이라는 문화적 자본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며(Bourdieu, 1979), 물리적이면서 상징적인 자원인 공간과 그러한 공간 내 생활양식에 의한 분화이기도 하다(Zukin, 1991).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집단을 분리하여 사회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분리는 공간적 형태로 전이된다. 공간적 분화는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상이한 경험과 행동, 의식을 보유한 다양한 집단들을 재생산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분절된 도시적 생활양식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다. 위스(Wirth, 1938)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urbanism as a way of life)’에서 도시 공간의 속성이 개인의 생활양식 및 인성을 구성함을 보여주었다.

취향이 경제력보다 소비의 질적 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취향은 경제적 자본뿐 아니라 생활 공간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공간은 소비취향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개인의 삶에 침투하여 문화적 취향으로 전환된다. 즉 특정한 공간은 특정한 소비 취향을 형성하고 특정한 소비행위를 유발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의식적 차원을 구성하게 된다.

공간적 경계는 취향을 분절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공선영, 2009)

## 2. 삶의 질과 도시생활

### 1) 삶의 질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용어의 등장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sup>2)</sup> 1960년대에 들어서 삶의 질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활발해지면서 삶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았다.(한국사회학회, 2011: 4~8)

이같이 삶의 질 개념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론화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맥락에서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정교한 이론적 설명이나 엄밀한 개념적 정의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삶의 질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지역적 상황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환경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삶의 질이란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평가와 정의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김상균, 1996: 219)

---

2) 1929년 후생경제학자 피구(Pigou)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비경제적 복지는 소득 획득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왜냐하면 근로환경이 삶의 질에 반작용을 가하기 때문이다.”(Pigou, The monetary theory of the trade cycle(1929): 14; 한국사회학회, 2011에서 재인용)

〈표 2-1〉 삶의 질 개념 정의

연구자	정 의
김상균 등 (1996)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윤병식 (1996)	개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나 사회구성원의 일부인 인구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같이 보아야 한다.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복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현송 (1997)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차원은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에서부터 건강, 소득, 노동, 교육, 환경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파악되는 삶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하며, 주관적 차원이란 삶에 대한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한성덕 (1998)	‘인간존엄성의 전일적 발현정도를 나타내는 실존능력(existential capability)’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개인의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실존의 통일적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한 외 (1998)	삶의 질을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보고 있다.(OECD의 사회지표체계는 객관적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체계임)
김명소·한영석 (2006)	행복은 개인이 추구하는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에 대한 충족으로 정의
안문경 등 (2007)	안녕(well-being),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행복(happiness), 삶에 대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안녕감과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인간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며, 그 지닌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 사회발전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 차원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인 건강, 소득, 노동, 교육, 환경, 안정 등과 주관적 차원의 만족, 성취,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서 재구성

이상의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삶의 질 개념은 경제지표 중심으로 생활여건이나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보다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삶의 질 개념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복지,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의 유사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다. 각 개념들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 중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삶의 질 및 사회지표 개념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구성원들의 가치관 등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즉 삶의 질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기 보다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삶의 질은 개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개인의 질 즉 ‘전체사회의 질(societal quality)’과 연관된다.(한국사회학회, 2011: 13~14)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삶의 질 개념과 같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객관적, 주관적, 종합적 접근법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객관적 접근법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 및 사회적 삶의 조건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관적 접근법은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종합적 접근법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이영균·김동규, 2007: 228~9)

〈표 2-2〉 삶의 질 지표 비교

연구자	주요 평가지표
김병국(1989)	자연·인구환경,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 등
Hughes(1990)	개인적 자율성, 육체적 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능력, 환경
임희섭(1996)	자아실현, 가계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영역 등의 주관적 지표, 개인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의 객관적 지표
하혜수(1996)	지역경제, 생활편의, 사회복지, 환경
이영균(1997)	행정적 편의, 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교통·정보화, 생활·주거환경, 공공안전, 형평성
김영종 외(1997)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교육·문화, 사회기반, 질서안전
소진광(1998)	인구, 소득 및 고용, 주거, 교육, 건강, 교통안전, 주민참여, 자연환경·여가활용, 인공 환경, 토지시장
허철행 외(2000)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최열 외(2001)	인구, 경제, 교육·문화, 사회복지, 주민보호, 도시기반
강성도(2002)	경제상태, 교통, 문화생활의 편리함,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장, 정보화의 수준,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 범죄율, 편리한 소비생활, 교육환경, 쾌적한 자연환경, 행정서비스의 양호함, 의료서비스의 편리함, 주택사정, 친근한 사람
Estes(2004)	교육, 여성지위, 경제, 환경, 문화다양성, 건강, 방어노력,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혼돈, 복지노력
송인성(2004)	인구, 주거, 소득 및 고용, 교육, 건강, 교통안전, 주민참여, 자연환경 및 여가활용, 인공환경, 토지시장의 10개 영역으로 제시
Glatzer(2006)	건강한 생활, 지식, 생활수준, 교육, 건강상태, 여성지위, 방어노력, 경제, 인구학적 특성, 환경, 사회적 혼돈, 문화다양성, 복지노력, 생활만족, 지역사회, 긍정적·부정적 감정
이재하(2007)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 서비스의 확충, 공연장·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시설과 여건 확충
정선기(2007)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
권용현(2008)	건강, 공공안전, 가족, 환경,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복지, 참여여건 등
정준금 외(2008)	환경,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의료
UNDP(2009)	노동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경제적·정치적 참여기회에 대한 형평성, 물적·인적·환경적 자원의 세대간 지속성,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의 획득

자료 : 송건섭 외, 2008: 228; 이경태·권영주, 2010: 102~3에서 재구성

## 2) 삶의 질 인식과 도시생활의 만족감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일한 환경 아래에서도 필연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기대에 따라 개인 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주관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Chaturvedi, 1991; 손장권 외, 2003: 194에서 재인용)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지표보다는 일상적 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더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삶의 질 차원은 물리적 환경이나 생활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기준이나 기대, 욕구에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해 개인의 경험을 통해 내리는 평가인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환경, 제도적 장치, 사회구조, 개인의 감정과 정서 등 다양한 차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주관적 삶의 질을 만족감, 행복감이라 할 때 이러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요소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만족감을 느끼는 개인의 인식이 소득수준, 주거·교육 같은 물질적인 환경이나 공공서비스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 한편 애정, 신뢰, 자긍심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Andrews, 1976; 김상규, 1996: 220에서 재인용)

도시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손장권 외, 2003) 근대적 요소가 강한 도시에서는 도시생활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반면에 전통성이 강한 도시 즉 도시문화적 요소가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도시일수록 도시생활에 대한 평가는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3. 지역 정체성

#### 1) 도시이미지

도시이미지는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이미지는 도시의 역사성이나 경관 등의 특성과 함께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투자나 관광 등을 위해 외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며 거주민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부여할 수 있다.

〈표 2-3〉 도시이미지 정의

연구자	정 의
Boulding(1956)	“특정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
Lynch(1960)	도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가져야 하며 도시는 사람에 의해 이미지화 되는 것
Kotler(1986)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 지역에 갖는 일련의 신념(주체, 대상, 기대감, 지속성 평가)”
임창호(1995)	“도시의 개별적인 부분(개별건축물, 자연환경, 자연경관 등)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
고민석(2005)	“특정도시에서 생산되는 임의의 물건이나 그 도시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설명적인 정보를 토대로 추론된 심리적인 개념 작용, 지각 또는 관념의 결과물”
김훈·송윤환(2007)	“도시의 생산품이나 장소 또는 그 도시의 특성(환경, 인적자원 등)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심리적으로 인식된 주관적 마음의 세계”
김덕현 외(2009)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도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신념, 아이디어 및 느낌의 일체”

자료 : 김덕현 외, 2009: 1627에서 재구성

〈표 2-4〉 도시이미지 유형

연구자	구분	구성요인
최승담·박경렬 (2005)	인지적 이미지	환경성, 관광매력성, 경제성, 접근성, 상징성, 구조성
	정서적 이미지	역동성, 전통성, 독특성, 쾌적성, 시각성
김남정(2005)	실체적 이미지	단위시설이미지, 장소이미지, 자연환경이미지, 도시환경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사회·문화·활동이미지, 공간·지리·위상이미지, 시대·시계열이미지, 도시생활이미지
	개인경험적 이미지	개인적 경험에 의한 이미지
변재상 외(2006)	물리적 이미지	인공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인문적 이미지	지리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기타 이미지
정만모(2008)	시각적 이미지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자연환경과 관련
	비시각적 이미지	인문·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느낌이나 분위기

자료 : 정만모, 2008: 17~18에서 재구성

도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시개방화, 도시현대화, 도시정체성, 도시안정성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도시정체성이다.(고민석, 2005). 지역 정체성에 따른 도시이미지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인지적, 감성적, 평가적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구성된다.(이영원, 2014)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높을수록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가지며, 지역 애정도와 정서적 유대감, 지역 신뢰도가 높을수록 친근한 도시이미지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주의식 및 지역 정체성의 속성 요소들

지역 정체성은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지역 정체성은 다양한 속성이 어우러진 복합체적 특성을 지닌다. 지역 정체성은 지역 사회나 지역민, 지역 행정 등에 관심을 갖는 지역 관여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거주 의지 등을 나타내는 지역 애착도,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자부심을 표시하는 지역 자긍심 등의 속성을 포함한다.(이영원, 2010)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지역 정체성의 이 속성 요소들은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sup>3)</sup>

정주의식은 “개인이 그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겠다는 의지”(이희창 외, 2004: 148)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주의식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정주의식을 “특정 지역이 주민에게 주는 의미, 바꾸어 말하면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느끼는 심리적 소속감 또는 주인의식”(전성표, 1998: 115)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up>4)</sup> 이런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과 정주의식은 상호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은 정주의식을 통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주의식과 지역자부심, 지역만족도를 포함하기도 한다.(전성표, 1998) 지역에 대한 애착심 형성에 지역출생여부와 거주연한 같은 지연적(地緣的)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직장만족도와 도시의 경제여건 같은 도시의 실리적 유용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현재적 조건만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대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기대 역시 지역애착심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

3) 이영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관여도가, 군 지역에서는 지역 애착도가 지역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주의식에 대해 ‘정주안정성’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정주안정성이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주(주거)를 정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거지의 안정성을 주는 정주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주거의 질 자체는 정주안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정주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해옥·엄수원(2014), 생활권의 주거의 질이 정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8(2): 68-71)

이희창 외(2004)는 정주의식을 지역애착과 영주의지로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물리적 환경, 사회적 자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주거이동과 지역애착 양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도면에서 지역애착보다는 영주의지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역시 주거이동이나 지역애착의 주요 영향요인인지만 물리적 환경보다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의식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2절 수원시 구별 현황

### 1. 4개 구 개요

#### 1) 장안구

장안구는 1988년 수원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며 2개의 일반구가 설치될 때 12개의 동으로 신설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설치되며 팔달로, 우만동, 지동, 이의동 등이, 2003년 영통구 신설시 화서동이 팔달구로 편입되어 현재는 행정동 10개동(법정동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장안구 전체 인구는 307,151명(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시 전체인구의 25.4%를 차지한다.

장안구는 시의 북부에 위치하며 지역적 경계로는 동쪽으로 용인시 수지구, 영통구 이의동, 팔달구 우만동, 서쪽으로 의왕시 월암동, 권선구 입북동과 구운동, 남쪽으로는 팔달구 화서1, 2동과 행궁동, 북쪽으로는 의왕시 왕곡동과 인접해있다. 장안구의 면적은 33.34km<sup>2</sup>로 권선구 다음으로 넓지만 임야의 비중이 높아 대지 면적만으로는 7.0km<sup>2</sup>로 권선구, 영통구보다 적으며 개발제한구역이 17.94km<sup>2</sup>로 시 개발제한구역 29.4km<sup>2</sup>의 61.0%를 차지한다.

장안구의 행정기구는 9과 43팀으로 산하에는 10개동이 있으며 재직하는 공무원은 구청 207명, 동 110명으로 총 317명이다. 행정구역은 10개동에 396통 1,836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재정규모는 526억 8,700만 원으로 시 총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안구에는 파장, 영화, 연무동 등 기존 주택 지역과 정자천천 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교육청, 경기지방 경찰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어 광역행정 업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 권선구

권선구는 1988년 구 설치시 12개 동으로 신설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될 때 인계동과 매탄동, 원천동이, 2003년 영통구 신설시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이 팔달구로 편입되면서 관할동이 11개동(법정동 16개동)이 되었다. 권선구 전체 인구는 347,928명으로 4개의 구중 가장 많으며 시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권선구는 시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이 도심을 흐르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팔달구 화서 1,2동, 고등동, 매산동, 인계동, 영통구 매탄3동과 태장동, 서쪽으로 화성시 매송면과 봉담읍, 안산시 반월동, 남쪽으로 화성시 화산동과 진안동, 기배동, 북쪽으로 장안구 율천동과 의왕시 월암동과 인접해있다. 면적은 47.17km<sup>2</sup>로 시 전체 면적의 3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1.05 km<sup>2</sup>로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7.7%에 해당한다.

권선구의 행정기구는 9과 43팀으로 산하에는 11개동이 있고 구청 216명, 동 117명 등 총 33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1개동에 427통 2,014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재정규모는 584억 6,000만 원으로 시 총예산의 2.8%에 해당한다.

권선구는 권선동, 곡선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 제10전투비행단 등이 입지해 있는 탓에 논밭이 많은 농촌지역의 성격이 두드러진 곳이었다. 그러나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 서수원권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파 아파트의 다수 건축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이 점차 도시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 농대와 농촌진흥청은 이전을 했고 제 10전투비행단은 이전이 결정되었기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팔달구

팔달구는 1993년 권선구 인계동, 매탄동, 원천동 및 장안구 팔달로, 우만동, 지동, 이의동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1995년 영통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며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 및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편입되었다. 2003년 영통과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망포동이 영통구로 분리되고, 동시에 장안구 화서동과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을 가져와 현재는 10개동(법정동 22개동)에 이른다. 2014년 팔달구의 인구는 4개의 구 중 가장 적은 217,229명으로 시 전체의 18.0%에 해당한다.

팔달구는 수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타 시·군과 접하는 경계는 없으며 사면이 모두 수원시의 다른 3개의 구와 접해 있다. 즉 동쪽으로는 영통구 광고동, 원천동, 매탄1동과 3동, 서쪽과 남쪽으로는 권선구 구운동, 서둔동, 세류1동과 3동, 권선1동, 북쪽으로는 장안구 율천동, 정자2동, 영화동, 연무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은 12.86km<sup>2</sup>로 4개의 구 중 가장 적으며 시 전체의 10.6%에 불과하다.

팔달구의 행정기구는 9과 53팀 10동이며 현재 구청 211명, 동 103명 등 총 32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0개동 356통 1,700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재정규모는 454억 4,700만 원으로 시 총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팔달구는 시의 구도심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재래시장이 발달해 있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이 위치해 있다. 영통구와 인접한 인계동과 우만동, 다른 팔달구 지역과 경부선 철도로 격리되어 있으며 북수원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구인 정자지구에 포함된 화서2동을 제외한 주요한 팔달구의 지역은 매우 낙후된 구도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팔달구의 중앙에는 수원화성이 위치해 있는데 화성 성역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서 보다는 관광 및 상업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도심으로 기능한 탓에 경기도청, 수원시청, 수원세무서, 경인지방병무청 등의 관공서와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다.

#### 4) 영통구

영통구는 수원시의 동부에 위치하며 가장 늦게 설치된 일반구이다. 2003년 팔달구에서 영통동, 망포동,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을 분리해서 신설하였다. 영통동이 1,2동으로, 매탄동은 1,2,3,4동으로, 광고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늘어난 광고동 또한 2015년 1월에 1,2동으로 분동하면서 현재는 10개동(법정동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통구의 인구는 339,816명으로 권선구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며 시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영통구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용인시 신갈동, 영덕동, 상갈동, 서쪽으로는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만1,2동과 인계동, 권선구 권선1동과 곡선동, 남쪽으로는 화성시 반월동과 용인시 서농동, 북쪽으로는 용인시 상현 1,2동과 인접해 있다. 면적은 27.68km<sup>2</sup>로 시 전체의 22.9%에 해당한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9과 43팀 10동이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구청 202명, 동 94명으로 총 296명이다. 행정구역은 10개동 314통 1,365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재정규모는 421억 3,700만원으로 시 예산대비 2.6%에 해당한다.

영통구는 1980년대 말 매탄지구, 1990년대 영통신도시, 2000년대 망포지구와 신동지구, 2010년대 광고신도시 등으로 개발되었기에 구 전체가 계획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통구는 전국 시·군·구 중 주민 평균 연령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20세 이하 청소년 인구 또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

5) 경기일보 2012년 4월 20일자

## 2. 구별 현황 비교

### 1) 인구 세대

2014년 수원시의 거주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20만 명을 넘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209,169명을 기록했다. 구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권선구의 인구가 347,928명으로 가장 많고, 영통구, 장안구 순이며 팔달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적어 30만 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밀도는 팔달구가 가장 높고 권선구가 가장 낮다. 이는 권선구의 면적이 가장 넓고 팔달구는 가장 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등록외국인 통계를 살펴보면 팔달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인구통계(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세대, 명, 명/km<sup>2</sup>, 세)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세대수		454,072	114,386	131,321	87,728	120,637	
인구	합계	1,209,169	307,151	347,928	217,229	336,861	
	내국인	계	1,174,228	301,196	339,835	203,479	329,718
		남	591,384	151,415	171,360	102,115	166,494
		여	582,844	149,781	168,475	101,364	163,224
	외국인	계	34,941	5,955	8,093	13,750	7,143
		남	17,829	2,983	3,981	7,094	3,771
		여	17,112	2,972	4,112	6,656	3,372
인구 밀도		9,989	9,212	7,376	16,896	12,171	
평균 연령		36.3	37.1	36.6	39.2	33.4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재구성

연령 구성을 보면 시 전체적으로 40대 인구의 비중이 18.6%로 가장 높다. 영통구의 경우는 30대 인구 비중이 19.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굉장히 높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7.5%로 낮은 편인데 반해 팔달구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16.0%를 차지해 상당히 높다. 즉 영통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비율적으로 팔달구에는 다소 높은 연령대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구의 평균 연령에서도 나타나는데 팔달구의 평균 연령은 39.2세로 가장 높고 영통구는 33.4세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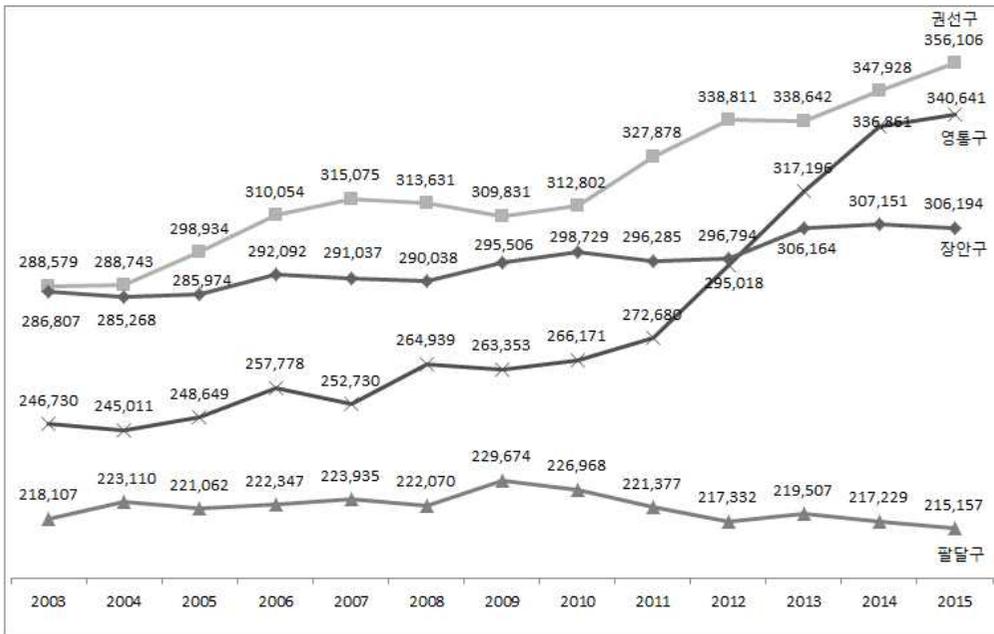
〈표 2-6〉 연령별 인구수(2014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지역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0-9세	118,801	10.1	28,389	9.4	33,827	10.0	16,175	7.9	40,410	12.3
10-19세	150,680	12.8	40,493	13.4	41,179	12.1	21,615	10.6	47,393	14.4
20-29세	175,004	14.9	44,191	14.7	50,891	15.0	30,193	14.8	49,729	15.1
30-39세	202,685	17.3	45,872	15.2	60,262	17.7	33,914	16.7	62,637	19.0
40-49세	218,939	18.6	57,403	19.1	61,436	18.1	35,400	17.4	64,700	19.6
50-59세	170,894	14.6	45,356	15.1	51,893	15.3	33,541	16.5	40,104	12.2
60-69세	74,797	6.4	20,642	6.9	22,664	6.7	17,947	8.8	13,544	4.1
70-79세	43,999	3.7	13,080	4.3	12,517	3.7	10,614	5.2	7,788	2.4
80세 이상	18,429	1.6	5,770	1.9	5,166	1.5	4,080	2.0	3,413	1.0
계	1,174,228	100.0	301,196	100.0	339,835	100.0	203,479	100.0	329,718	100.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rcps.egov.go.kr:8081/

4개의 구가 설치되었던 2003년의 수원시 총 인구(거주 외국인 포함) 1,040,223명과 비교해서 현재 인구는 1,218,098명(2015년 9월 기준)으로 6.8%가 증가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구는 영통구로 246,730명에서 340,641명으로 38.1%가 증가했으며, 다음은 288,579명에서 356,106명으로 23.4%가 증가한 권선구이다. 특히 영통구는 구 설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2년 이후에는 매년 2%가 넘는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며 2013년에 장안구의 인구를 넘어섰다. 권선구 또한 2009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팔달구의 인구는 2003년 218,107명에서 2009년 229,674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2015년에는 215,157명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4%가 감소해 있다. 영통구와 권선구의 인구 증가는 광교신도시 건설,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1〉 인구변동 현황(2003~2015)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2015년 수치는 9월 30일 기준 잠정치로 추후 확정 자료가 작성되면 변동될 수 있음

## 2) 토지와 주택

권선구의 토지 면적은 47.17km<sup>2</sup>로 4개의 구 중 가장 넓으며 시 전체 면적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장안구가 27.5%를 차지하고 영통구는 22.9%이며 팔달구는 시 전체의 10.6%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 면적에서는 영통구가 장안구보다 약간 더 넓다. 장안구는 구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야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표 2-7) 토지 현황(2015년 1월 1일 기준)

(단위 : km<sup>2</sup>)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면적	121.05(29.4)	33.34(17.94)	47.17(11.05)	12.86	27.68(0.36)
대지	31.64(0.23)	7.00(0.07)	10.26(0.16)	6.53	7.84
전	7.84(3.42)	1.56(0.8)	5.11(2.62)	0.35	0.81
답	11.84(4.53)	1.17(0.7)	9.08(3.83)	0.29	1.30
임야	26.00(18.73)	15.67(15.37)	5.08(3.0)	1.20	4.05(0.36)
기타	43.73(2.44)	7.93(1.0)	17.65(1.44)	4.48	13.67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괄호 안은 개발제한구역

주택은 장안구와 영통구에 가장 많은 호가 분포되어 있고, 팔달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수를 보인다. 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전체 주택의 70%가 넘는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통구이며 팔달구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영통구는 전체 주택의 92%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장안구이며 단독주택은 팔달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수원시 전체의 주택보급율은 91.59%이며, 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안구는 103.01%로 가장 높은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권선구가 82.67%로 가장 낮다.

〈표 2-8〉 주택유형별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호)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 계		294,150	82,880	77,279	52,507	81,484
공동주택	소계	255,339	71,457	65,661	40,198	78,023
	아파트	212,412	54,524	54,032	29,941	74,915
	연립	5,513	2,324	546	1,075	1,568
	다세대	37,414	14,609	11,083	10,182	1,540
단독주택	다가구	38,811	11,423	11,618	12,309	3,461
주택보급률		91.59%	103.01%	82.67%	85.68%	94.82%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3) 산업

수원시에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영통구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이 차지한다. 장안구는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으며, 권선구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팔달구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이다. 영통구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는 시 전체의 73.6%, 제조업 종사자는 시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영통구에 삼성전자와 광교테크노벨리가 입지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2-9〉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65,259	382,066	14,403	73,300	18,560	81,970	18,648	99,325	13,648	127,471
농업, 임업 및 어업	6	247	2	169	1	23	-	-	3	55
광업	-	-	-	-	-	-	-	-	-	-
제조업	3,342	41,590	449	3,319	1,199	9,309	796	2,324	898	26,638
전기, 가스, 수도	14	660	4	156	1	61	2	221	7	222
하수 폐기물,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52	693	5	11	33	551	7	13	7	118
건설업	2,012	15,575	475	4,010	717	4,725	544	4,496	276	2,344
도매 및 소매업	15,736	50,362	3,079	10,080	4,634	14,856	5,395	15,491	2,628	9,935
운수업	6,924	18,101	1,759	4,161	2,814	7,493	1,284	3,887	1,067	2,560
숙박 및 음식업	12,327	40,522	2,884	8,594	2,884	7,911	3,935	14,230	2,624	9,7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2	5,410	71	1,194	67	664	155	1,685	159	1,867
금융 및 보험업	823	14,406	116	1,611	161	1,901	436	9,665	110	1,2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37	10,805	691	2,122	817	2,465	847	3,264	882	2,95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51	43,802	254	3,046	359	5,607	532	2,915	806	32,2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05	34,617	182	8,023	252	6,136	512	13,536	159	6,92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9	13,196	30	4,242	31	1,469	37	4,840	31	2,645
교육서비스업	4,006	36,420	1,069	10,063	932	6,495	752	6,573	1,253	13,28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887	28,513	694	5,872	728	5,937	665	8,207	800	8,4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6	6,643	611	1,874	606	1,370	569	2,067	460	1,3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10	20,504	2,028	4,753	2,324	4,997	2,180	5,911	1,478	4,843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4) 도로 및 교통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도로 총연장은 937.6km이며 이 중 시도가 873.9km로 93.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안구의 도로 총연장은 207.1km인데 50번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6km, 1번 국도(경수대로)가 지나가는 일반국도가 7.5km, 시도가 193.6km로 구성되어 있고 장안구를 지나가는 지방도는 없다. 권선구의 도로 총연장은 331.41km로 고속도로는 지나가지 않으며, 1번과 수인산업도로인 42번, 43번 국도가 16.5km, 과천-봉담도로로 불리는 309번 지방도 5.3km, 시도 309.6km가 분포되어 있다. 팔달구를 거쳐가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는 없고 국도와 시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팔달구를 관통하는 1번, 42번과 43번 국도 11.4km와 시도 180.7km가 분포되어 있다. 영통구는 50번 고속도로와 171번 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42번 국도, 315번 지방도 등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모두 분포되어 있다. 영통구의 도로 총연장은 207km로, 고속도로 9km, 국도 6km, 지방도 2km, 시도 190km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도로 현황(2015년 1월 기준)

(단위 : km)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체	937.6	207.1	331.41	192.1	207
고속도로	15	6	-	-	9
국도	41.4	7.5	16.5	11.4	6
지방도	7.3	-	5.3	-	2
시도	873.9	193.6	309.6	180.7	190

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 및 별도 제공 자료

수원시를 지나가는 철도노선은 국철과 노선을 같이 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분당선이 있으며 수원시에 위치한 역은 10개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장안구에는 1호선의 성균관대역과 화서역이 위치하고 있고 권선구에는 1호선의 세류역, 분당선의 매탄권선역이 있다. 팔달구에는 1호선의 수원역, 분당선의 매교역과 수원시청역이, 영통구에는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이 위치해 있다.

〈표 2-11〉 철도 현황(2015년 1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역 수	10	2	2	3	3
1호선 역		성균관대역 화서역	세류역	수원역	
분당선 역		-	매탄권선역	매교역 수원시청역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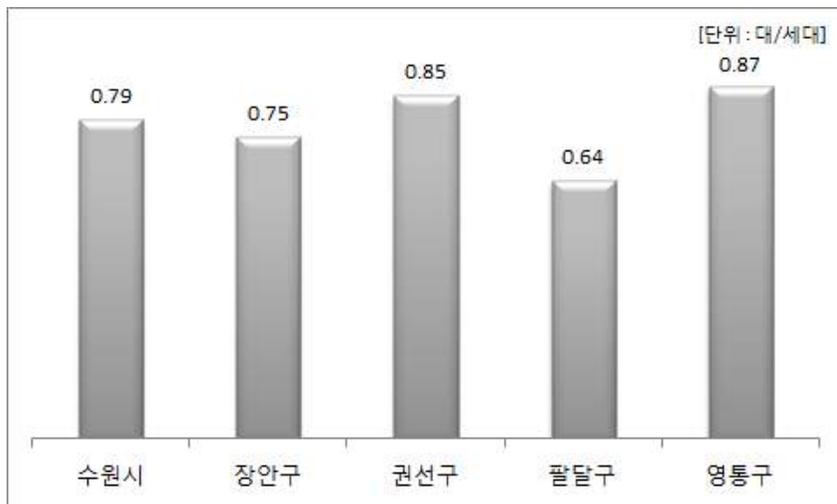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33,967대인데, 권선구에 32.5%인 140,886대가 등록되어 있어 가장 많으며 영통구 118,291대, 장안구 103,631대, 팔달구 71,159대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승용차 등록현황 역시 권선구가 114,132대로 가장 많으며, 영통구 105,856대, 장안구 86,308대, 팔달구 57,867대 순이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세대당 비율은 영통구가 0.87대로 가장 많고, 권선구 0.85대, 장안구 0.75대이며 팔달구는 가장 적은 0.64대이다.

〈표 2-12〉 차량 등록 현황(2015년 1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계	433,967	103,631	140,886	71,159	118,291
	비사업용	416,890	100,076	133,831	67,378	115,605
	사업용	17,077	3,555	7,055	3,781	2,686
승용	계	364,163	86,308	114,132	57,867	105,856
	비사업용	356,629	85,262	111,032	55,807	104,528
	사업용	7,534	1,046	3,100	2,060	1,328
승합	계	21,234	5,659	7,659	3,912	4,004
	비사업용	18,466	4,893	6,135	3,661	3,777
	사업용	2,768	766	1,524	251	227
화물	계	47,827	11,538	18,749	9,250	8,290
	비사업용	41,554	9,855	16,582	7,854	7,263
	사업용	6,273	1,683	2,167	1,396	1,027
특수	계	743	126	346	130	141
	비사업용	241	66	82	56	37
	사업용	502	60	264	74	104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그림 2-2〉 세대당 승용차(비사업용)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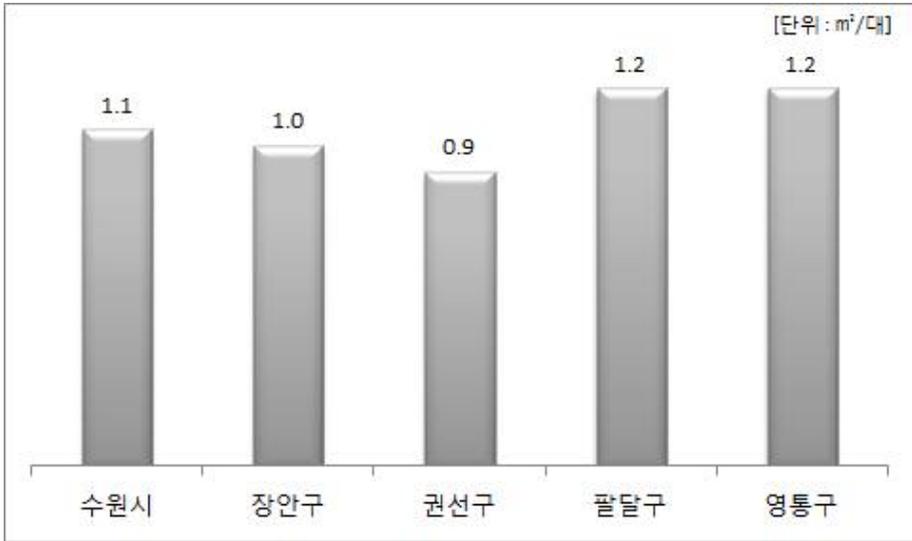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 개소는 7,732개로 권선구가 가장 많으나 면적상으로는 영통구가 149,557㎡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권선구의 주차장 총 면적은 142,159㎡로 두 번째로 넓으나 영통구의 주차장 개소는 3,194개로 4개의 구 중 가장 적다. 장안구는 5,835개소에 114,419㎡이고 팔달구는 5,838개소에 93,706㎡이다. 주차장의 대부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전체 주차장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등록차량 1대당 주차면적은 영통구와 팔달구가 1.2㎡로 가장 넓고 권선구는 0.9㎡로 가장 적다. 장안구는 1.0㎡이며 시 전체로는 1.1㎡이다.

〈표 2-13〉 주차장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개소	22,610	5,835	7,732	5,838	3,194	
	면수	499,841	114,419	142,159	93,706	149,557	
노상	유료	개소	845	275	287	231	52
		면수	16,696	5,065	5,629	4,490	1,512
	무료	개소	167	30	44	62	31
		면수	842	198	324	180	140
노외	공영	개소	49	12	17	12	8
		면수	5,670	1,573	1,158	1,174	1,765
	민영	개소	185	45	41	60	28
		면수	7,412	1,083	2,028	1,548	2,753
부설	개소	21,364	5,473	7,343	5,473	3,075	
	면수	469,221	106,500	133,020	86,314	143,387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그림 2-3〉 차량 1대당 주차면적

### 5) 소비시설

수원시의 식품위생 관련업소는 13,160개인데 그중 팔달구에 3,845개, 권선구에 3,261개, 장안구에 3,051개, 영통구에 3,003개가 분포되어 있어 총 개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단위면적당(1km<sup>2</sup>) 개수를 산출해 보면 팔달구는 299.0개로 다른 3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수치가 높다. 영통구가 108.5개로 두 번째로 많고 다음은 장안구 91.5개이며 면적이 넓은 권선구는 가장 적은 69.1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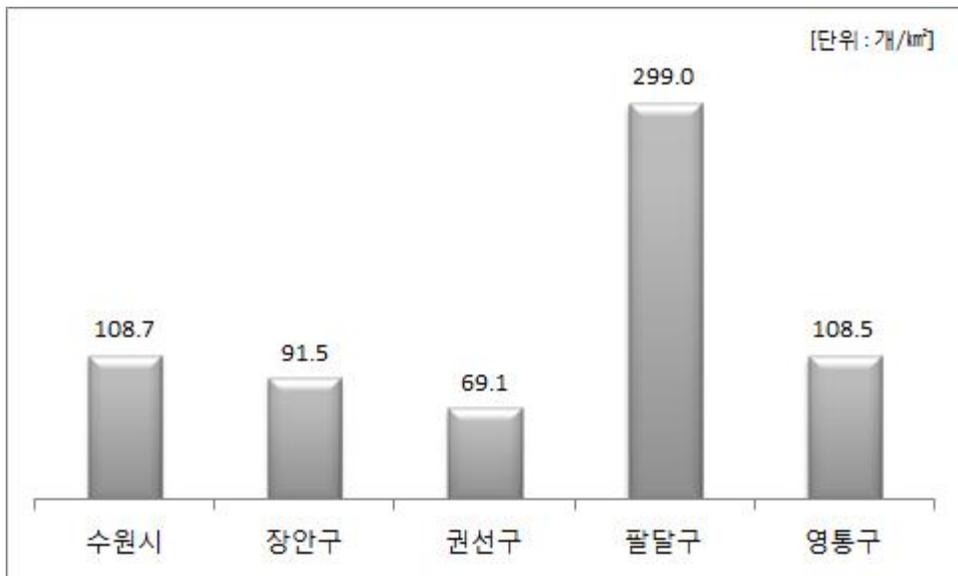
업소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커피숍 등의 음료점은 영통구에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 반면 유흥·단란주점은 영통구에 가장 적게 입지해 있다. 유흥·단란주점은 권선구에도 비교적 적은 분포를 보이며 주로 팔달구와 장안구에 위치해 있다. 일반주점 역시 영통구에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영통구는 거주 중심이고 팔달구와 장안구에 상업·유흥지구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4〉 식품위생 관련업소(요식업소) 현황(2014년 8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13,160	3,051	3,261	3,845	3,003
휴게 음식점	다방	115	29	16	68	2
	제과점	326	72	76	85	93
	커피숍 등 음료점	1,218	229	209	379	401
	패스트푸드, 분식 등 간이음식점	1,357	314	363	341	339
일반음식점		7,450	1,106	1,924	2,131	1,689
주점	일반주점	2,293	563	605	683	442
	유흥·단란주점	401	138	68	158	37

자료 : 각 구청 제공자료에서 재구성



〈그림 2-4〉 단위면적(1km²)당 평균 업체수

수원시에는 총 45개의 시장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가 팔달구에 입지해 있다. 수원시에 입지해 있는 2개의 백화점 모두 팔달구에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시 전체 22개의 2/3에 해당하는 14개가 팔달구에 위치해 있다. 영통구에는 재래시장이 1개 밖에 없는 대신 대형마트가 5개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표 2-15〉 시장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45	8	8	20	9
백화점	2	-	-	2	-
대형마트	11	2	3	1	5
쇼핑센터	10	1	3	3	3
시장	22	5	2	14	1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수원시에는 총 142개의 금융기관이 입지해 있는데 그중 70% 가까운 97개가 팔달구와 영통구에 밀집되어 있다. 영통구가 가장 많은 51개, 팔달구는 46개, 장안구 27개가 들어서 있으며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권선구에는 불과 18개의 금융기관만이 위치해 있다.

〈표 2-16〉 금융기관 분포(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142	27	18	46	51
한국은행	1	1	-	-	-
시중은행	97	16	11	34	36
특수은행	43	10	7	11	15
기타은행	1	-	-	1	-
새마을금고	12	2	4	3	3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6) 여가·문화 및 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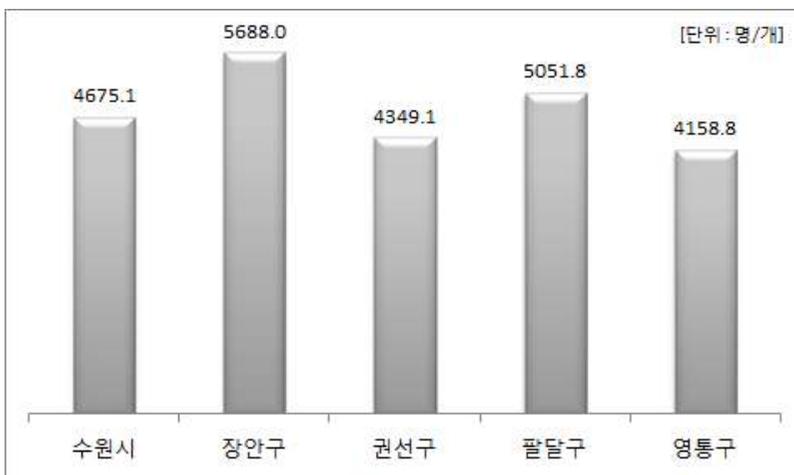
수원시에는 258개의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의 약 2/3 가량이 권선구와 영통구에 위치해 있다. 영통구와 권선구는 각각 81개와 80개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장안구는 54개, 팔달구는 43개에 불과하다. 권선구는 상대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많으며 영통구는 상대적으로 근린공원이 많은 편이다. 공원 대비 인구수를 살펴보면 공원 수가 많은 영통구와 권선구는 각각 4158.8명과 4349.1명당 1개 공원이 분포되어 있다. 팔달구가 공원 수는 가장 적으나 공원 대비 인구수로는 5051.8명으로 장안구의 5688.0명 보다 적게 나타났다.

〈표 2-17〉 공원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258	54	80	43	81
어린이공원	190	42	61	34	53
근린공원	65	12	16	9	28
체육공원	3	-	3	-	-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그림 2-5〉 공원 대비 인구수

수원시의 문화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시설은 주로 팔달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연시설은 시 전체 7개 중 5개, 전시시설은 시 전체 8개 중 4개, 기타 시설의 문화원과 전수회관 모두가 팔달구에 입지해 있다. 지역문화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영화관 또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팔달구에 조금 더 몰려 있다.

〈표 2-18〉 문화시설(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공연시설	문예회관	2	1	-	1	-
	기타†	5	1	-	4	-
전시시설	박물관	5	-	-	2	3
	미술관	3	1	-	2	-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집	2	1	-	-	1
	문화체육센터	2	-	1	-	1
	청소년수련 활동시설	2	-	1	1	-
기타 시설	문화원	1	-	-	1	-
	전수회관	1	-	-	1	-
영화관	관	8	1	2	3	2
	스크린	59	9	13	20	17
공공도서관	일반	19	4	6	5	4
	어린이	5	1	1	1	2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재구성

† 야외음악당, 시민회관, 기타 아트홀 등이며 시설별로 산정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권선구와 영통구에는 각각 115개와 113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팔달구는 그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60개만이 위치해 있다. 학급수로 보면 영통구가 2,067개 학급으로 가장 많은 반면 권선구의 학급수는 1,581개로 오히려 학교수가 적은 장안구의 1,650개 보다도 적다. 수원시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 분포를 보면 장안구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동남보건대학교, 권선구에는 수원여자대학교, 팔달구에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영통구에는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표 2-19〉 교육기관 현황(2014년 4월 1일 기준)

(단위 : 개교,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유치원	원수	188	48	61	24	55
	학급수	893	254	259	76	304
초등학교	학교수	97	22	32	16	27
	학급수	2,665	653	769	368	875
중학교	학교수	56	13	14	9	20
	학급수	1,346	341	318	212	475
고등학교	학교수	42	12	8	11	11
	학급수	1,496	402	235	446	413
대학교	학교수	6	2	1	1	2
	학과수	206	43	43	12	108
대학원	학교수	27	5	-	-	22
	학급수	233	71	-	-	162
기타학교	학교수	3	1	1	-	1
	학급수	81	29	17	-	35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 7) 보건, 의료 및 복지시설

수원시의 전체 의료기관 수는 1,421개인데 그 중 팔달구에 가장 많은 416개가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영통구에 392개, 장안구에 328개가 분포해 있고 권선구에 가장 적은 285개가 위치해 있다. 종합병원은 권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에 소재하고 있다. 일반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모두 팔달구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으며 권선구에 가장 적게 분포해 있다. 반면에 치과의원은 영통구에 가장 많이, 권선구에는 가장 적게 위치해 있다.

〈표 2-20〉 의료기관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기관수	1,421	328	285	416	392
	병상수	10,286	2,163	1,647	4,099	2,377
종합병원	기관수	4	1	-	2	1
	병상수	2,427	148	-	1,189	1,090
병원	기관수	58	13	10	24	11
	병상수	6,167	1,654	1,215	2,396	902
의원	기관수	650	148	131	201	170
	병상수	1,520	361	432	355	372
치과의원	기관수	394	92	83	95	124
	병상수	-	-	-	-	-
한방병의원	기관수	306	72	61	90	83
	병상수	137	-	-	137	-
부속의원	기관수	9	2	-	4	3
	병상수	35	-	-	22	13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약품 관련 판매업소의 대다수는 약국으로 4개의 구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는 편이다. 약국은 팔달구와 권선구에 각각 122개가 있으며, 영통구에는 114개, 장안구에는 107개가 있다. 도매상과 약업사 및 한약업사까지 포함한 전체 약품 관련 판매업소 분포는 팔달구가 150개로 가장 많으며 영통구가 114개로 그 뒤를 이으며 권선구는 138개로 세 번째이고 장안구는 129개로 가장 적다.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소 또한 팔달구에 483개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으며 다음으로는 권선구에 307개, 영통구에 295개, 장안구에는 269개가 위치해 있다. 팔달구에 의약품 판매업소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은 팔달구에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1〉 의약품 판매업소(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약 국	465	107	122	122	114
도매상	78	17	13	22	26
약업사	2	2	-	-	-
한약업사	16	3	3	6	4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1,354	269	307	483	295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안구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영통구에 가장 적게 위치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안구에는 90개의 시설이 위치해 있는 반면 영통구에는 장안구의 약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36개만이 위치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만 권선구에 30개가 소재하고 있어 장안구의 20개보다 많다. 영통구는 권선구의 20%에 불과한 6개만이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도 12개로 장안구에 가장 많으며 권선구와 영통구에 각 7개가, 팔달구에 가장 적은 2개로 위치해 있다.

〈표 2-22〉 사회복지시설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사회복지관		5	2	-	1	2
노숙인쉼터		5	1	2	2	-
노인 복지 시설	계	233	90	70	52	36
	노인주거복지시설	5	4	1	-	-
	노인의료복지시설	76	33	24	15	4
	재가노인복지시설	152	51	43	37	31
	노인복지관	-	2	2	-	1
아동 복지 시설	계	58	20	30	13	6
	아동복지시설	12†	5	2	3	1
	지역아동센터 시설	58	15	28	10	5
장애인시설		28	12	7	2	7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에서 재구성

† 비공개 2개소 포함

## 8) 환경 및 행정시설

수원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664개로 수질오염 시설이 482개, 대기오염 시설이 169개 소음 시설이 13개이다. 전체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은 권선구로 272개의 업체가 있으며 다음은 영통구로 214개가 위치해 있다. 장안구에는 110개 업체가, 팔달구는 가장 적은 68개의 업체가 위치해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권선구에 205개로 가장 많고 영통구 121개, 장안구 99개, 팔달구 56개가 있다. 대기오염 시설은 영통구가 가장 많은 93개가 있고 권선구에 54개,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각각 11개가 있다. 소음 시설은 팔달구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권선구에 밀집

해 있다. 권선구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많은 것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2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664	110	272	68	214
폐 수	482	99	205	56	121
대 기	169	11	54	11	93
소 음	13	-	12	1	-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

경찰서나 소방서,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행정 시설은 지역을 분담하여 관할하는 특성상 비교적 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팔달구와 권선구에 각각 9개와 8개, 장안구와 영통구에는 각각 4개와 3개가 소재하고 있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는 장안구 3개, 권선구 4개, 팔달구 2개, 영통구 3개로 거의 구 면적에 비례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체국과 우편취급소는 영통구가 13개로 약간 더 많고 장안구 8개, 권선구와 팔달구는 7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지역시설을 총괄하는 본부격인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소방본부, (경기)교육청, (중부)지방국세청, (경인)지방우정청 등은 권선구에 위치한 우정청을 제외하고는 전부 장안구에 위치해 있다. 영통구에는 사법 관련 기관 즉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소재하고 있다.

〈표 2-24〉 관공서 및 주요기관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경찰· 소방관서	지방경찰청	1	1	-	-	-
	경찰서	3	1	1	-	1
	지구대·파출소	24	4	8	9	3
	소방본부	1	-	1	-	-
	소방서	1	1	-	-	-
	119구조대·안전센터	12	3	4	2	3
법원· 검찰관서	법원(지원)	1	-	-	-	1
	등기소	2	1	-	-	1
	검찰(지청)	1	-	-	-	1
	교도소·구치소	1	-	-	1	-
교육청	교육청	1	1	-	-	-
	교육지원청	1	1	-	-	-
세무관서	지방국세청	1	1	-	-	-
	세무서	2	-	-	1	1
우편관서	지방우정청	1	-	1	-	-
	우체국	23	5	4	5	9
	우편취급소	12	3	3	2	4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에서 재구성

# 제3절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5년 시행한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의 데이터이다. 위 조사는 행정자치부가 인구통계 홈페이지에 매월 발표하는 인구수를 기준(2014년 12월 기준)으로 구별 인구비례할당으로 표본수를 선정하고, 만 19세 이상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6일(22일 간)까지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후 성·연령·지역(구)에 따라 사후층화를 실시하였다. 면접식 설문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총 600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2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01 (50.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 (1.5)	
	여성	299 (49.8)		100만원 대	34 (5.7)	
연령	20대	130 (21.7)		200만원 대	90 (15.0)	
	30대	130 (21.7)		300만원 대	143 (23.8)	
	40대	140 (23.3)		400만원 대	139 (23.2)	
	50대	110 (18.3)		500만원 대	107 (17.8)	
	60대 이상	90 (15.0)		600만원 이상	78 (13.0)	
교육수준	고등학교 미만	58 (9.7)		지역구분	장안구	160 (26.7)
	고졸	220 (36.7)			권선구	169 (28.2)
	초대졸	129 (21.5)			팔달구	101 (16.8)
	대졸이상	193 (32.2)	영통구		170 (28.3)	

## 2.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은 SPSS 21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일반사항 등에 대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문화적 특성 변수, 삶의 질 변수와 도시 관련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법을 활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지역간 차이를 알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평균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부록 참조)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과 다른 인구학적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원시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크게 사회적 관계와 여가 및 소비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다시 ‘이웃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임활동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및 소비의 영역은 ‘외식행태’, ‘여가활동’, 그리고 소비행태를 ‘적극적 소비’와 ‘습관적 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관계’는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 이웃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 그리고 이웃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는 정도의 하위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모임 활동 만족도’는 수원시민의 각종 동호회활동과 친목회활동의 만족도로 측정하여 각 하위척도의 평균값으로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부모님 계층’은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고, 두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여가 및 소비의 영역에서 ‘외식행태’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하는 것,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데 대해 측정되었고, ‘여가활동’은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할 의향과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소비행태는 다시 ‘적극적 소비’와 ‘습관적 소비’로 분류하였는데, ‘적극적 소비’는 신제품

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제품 선호여부,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즐겨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로 측정하였고, ‘습관적 소비’는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지, 충동구매 여부, 일상생활용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지 여부,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척도들은 한 요인으로 분류되어 평균값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2-26〉 사회문화적 특성 관련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문항	요인	신뢰도
사회적 관계	이웃관계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 동의 여부	.908	.911
		이웃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는 정도 동의 여부	.896	
		이웃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 동의 여부	.844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님과과의 관계만족도	.903	.558
		본인의 부모님과과의 관계만족도	.850	
	모임활동 만족도	친목회활동 참여만족도	.937	.751
		각종 동호회활동 참여만족도	.803	
	부모님 계층	본인의 부모님 계층	.900	.828
		배우자의 부모님 계층	.898	
	여가 및 소비	여가활동	여건이 된다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	.854
나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			.811	
외식 행태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	.907	.770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하는 것	.882	
적극적 소비		신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여부	.825	.783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 선호여부	.793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여부	.778	
		즐거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723	
습관적 소비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지 여부	.813	.759
		충동구매 여부	.763	
	일상생활용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지 여부	.757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711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과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 부문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개인 만족 변수는 ‘상태수준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여가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로 구성하였는데, ‘상태수준 만족도’는 어의구분척도를 사용하여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6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다(구체적으로는 ‘지루하다-재미있다’, ‘궁핍하다-넉넉하다’, ‘불행하다-행복하다’, ‘어리석다-현명하다’, ‘매어있다-자유롭다’, ‘절망적이다-희망적이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개인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재정상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요인분석 결과 한 요인으로 분류되어 네 변수의 평균값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수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직장생활 만족도’는 노동 강도, 업무내용, 근로시간, 인간관계, 소득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다섯 개 변수의 평균값으로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크게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적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과 안전기관의 충분 정도, 그리고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수행에 대한 만족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거주환경 만족도’는 거주지역의 문화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4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2-27〉 삶의 질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구 분	문 항	요인	신뢰도		
개인 만족 변수	상태수준 만족도	상태수준6(절망적이다-희망적이다)	.779	.808	
		상태수준3(불행하다-행복하다)	.774		
		상태수준4(어리석다-현명하다)	.767		
		상태수준1(지루하다-재미있다)	.753		
		상태수준2(궁핍하다-넉넉하다)	.688		
		상태수준5(매어있다-자유롭다)	.571		
	생활 만족도	사회생활 만족도	.793	.723	
		가정생활 만족도	.767		
		재정상태 만족도	.738		
		건강상태 만족도	.696		
	여가 만족도	여가활동 충분성	.888	.731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888		
	직장생활 만족도	노동 강도 만족도	.786	.770	
		업무내용 만족도	.762		
		근로시간 만족도	.739		
		인간관계 만족도	.682		
		소득 만족도	.651		
	물리적 환경만족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행정서비스제공 만족도	.678	.752
			안전기관 충분성	.622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 수행			.716		
거주 환경 만족도		거주지역의 문화환경 만족도	.776	.738	
		거주지역의 사회환경 만족도	.763		
		거주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755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704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수원시민의 도시에 대한 정서적 변수는 크게 ‘도시이미지’와 ‘도시자긍심’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도시자긍심’은 수원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만족 수준과 수원시민으로의 자부심 정도, 그리고 수원시 도시 수준 정도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한 요인으로 분류되어 평균값으로 새롭게 변수를 구성하였다. ‘도시이미지’는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한 변수로 의미분화척도(어의구별척도)를 사용하여 수원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였다.

수원시민의 정주의식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올 의향이 있는지, 외적환경의 변화(예: 이직)가 없는 한 10년 후에도 수원시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 지인들에게 수원시에 사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천의지로 측정하였으며, 한 요인으로 분류되어 세 변인의 평균값으로 정주의식을 구성하였다.

〈표 2-28〉 도시 관련 변수 및 정주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신뢰도
도시 이미지	수원시의 이미지1(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761	.783
	수원시의 이미지2(수동적이다-능동적이다)	.761	
	수원시의 이미지3(차갑다-따뜻하다)	.726	
	수원시의 이미지4(생기없다-활기차다)	.719	
	수원시의 이미지5(더럽다-깨끗하다)	.702	
도시 자긍심	수원시의 도시이미지 만족도	.853	.756
	수원시민의 자부심 정도	.809	
	수원시의 도시 수준 정도에 대한 만족도	.804	
정주 의식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올 의향이 있다	.889	.793
	외적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10년 후에도 수원시에 계속 거주 하겠다	.826	
	지인들에게 수원시에 사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811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 제3장

## 분석 결과

제1절 사회문화적 특성

제2절 삶의 질

제3절 지역 정체성



# 제3장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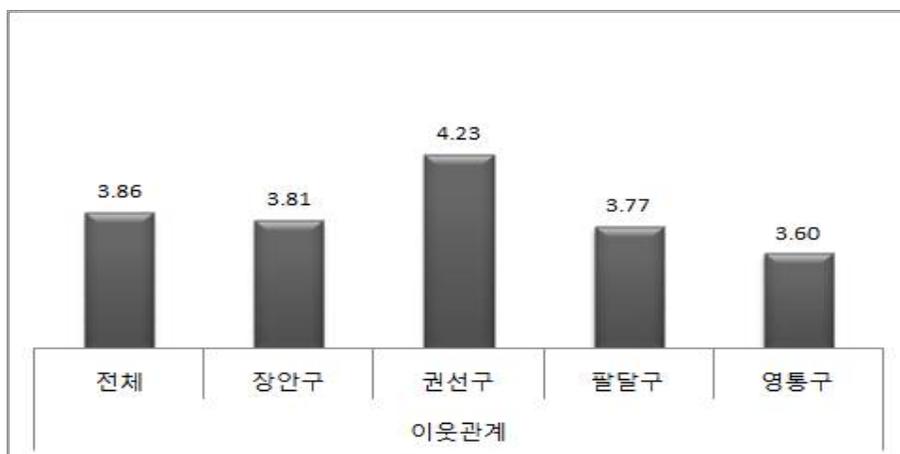
## 제1절 사회문화적 특성

### 1. 사회적 관계

#### 1) 이웃관계

수원시민의 사회적 관계 중 먼저 이웃관계를 살펴본다. 이웃관계는 총 3 문항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 ‘이웃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 그리고 ‘이웃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는 정도’이다. 세 문항의 평균 점수로 이웃과의 친밀성 정도(이웃관계)를 파악하였다.

수원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이웃과의 친밀성은 ‘권선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경우 평균 4.23점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외의 지역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영통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이웃과의 친밀성 정도가 평균 3.60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그림 3-1〉 이웃관계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다른 인구학적 변인은 이웃관계에 주효과만 보일 뿐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웃관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교육수준의 주효과, 거주지역의 주효과, 그리고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이웃관계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표 3-1〉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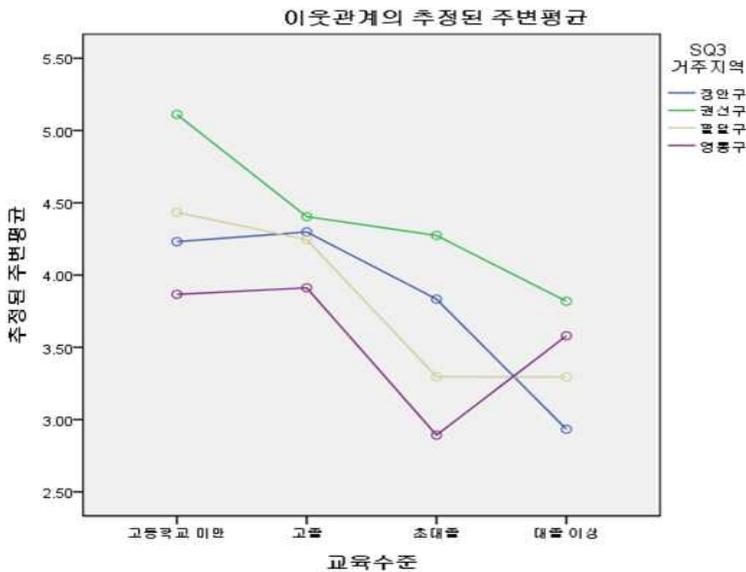
교육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고등학교 미만	장안구	4.23	1.04	26
	권선구	5.11	0.57	12
	팔달구	4.43	0.69	10
	영통구	3.87	1.26	10
	합계	4.39	1.01	58
고졸	장안구	4.30	1.44	57
	권선구	4.40	1.09	61
	팔달구	4.25	1.01	38
	영통구	3.91	1.49	64
	합계	4.21	1.30	220
초대졸	장안구	3.83	1.56	32
	권선구	4.27	0.85	39
	팔달구	3.30	1.27	27
	영통구	2.89	1.60	31
	합계	3.63	1.42	129
대졸 이상	장안구	2.93	1.43	45
	권선구	3.82	1.20	57
	팔달구	3.29	1.38	26
	영통구	3.58	1.54	65
	합계	3.46	1.43	193
합계	장안구	3.81	1.51	160
	권선구	4.23	1.10	169
	팔달구	3.77	1.25	101
	영통구	3.60	1.55	170
	합계	3.86	1.39	600

〈표 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156.937a	15	10.462	6.083	.000	.135
절편	6310.744	1	6310.744	3669.213	.000	.863
교육수준	86.904	3	28.968	16.843	.000	.080
거주지역	40.683	3	13.561	7.885	.000	.039
교육수준 * 거주지역	38.958	9	4.329	2.517	.008	.037
오차	1004.432	584	1.720			
합계	10098.556	600				
수정 합계	1161.369	599				

a. R 제곱 = .135 (수정된 R 제곱 = .113)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의 교차 그래프를 살펴보면, 패턴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웃관계의 친밀정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영통구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이웃관계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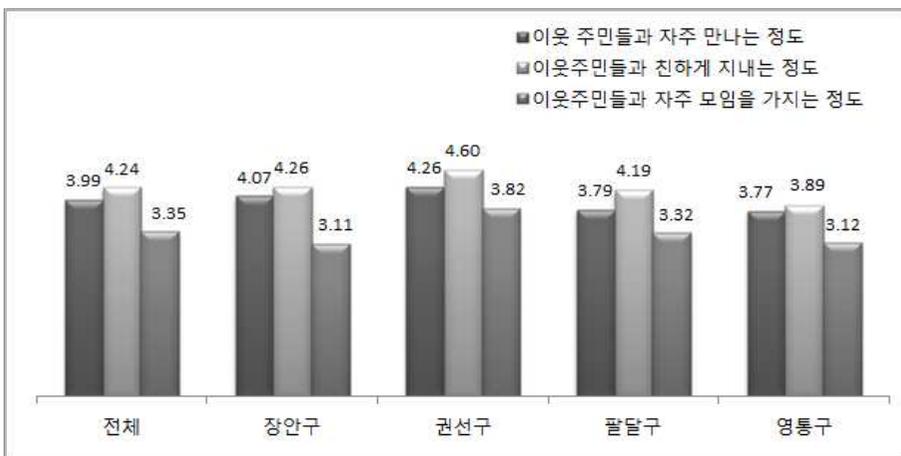
〈그림 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관계

구체적으로 ‘이웃관계’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세부 요인별로 지역 간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웃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는 수원시 전체 평균이 3.99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남 정도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권선구’와 ‘장안구’가 각각 평균 4.26점, 4.07점으로 높은 편이며, ‘팔달구’와 ‘영통구’가 각각 3.79점, 3.77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이웃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에 대해서는 수원시 전체 평균은 4.24점이었는데, ‘권선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이 평균 4.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가 3.89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웃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다. 수원시민의 전체 평균이 3.35점이고, 가장 높은 ‘권선구’의 경우도 3.82점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모임 정도는 다소 적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웃과의 만남이나 모임정도에 비해 친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물리적인 접촉은 빈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세부영역별 이웃관계

통계적으로도 이웃관계의 지역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수원시민에 비해 이웃관계가 친밀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들과의 모임정도에 대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권선구'는 명확하게 다른 집단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와 친하게 지내는 정도에 비해 모임의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권선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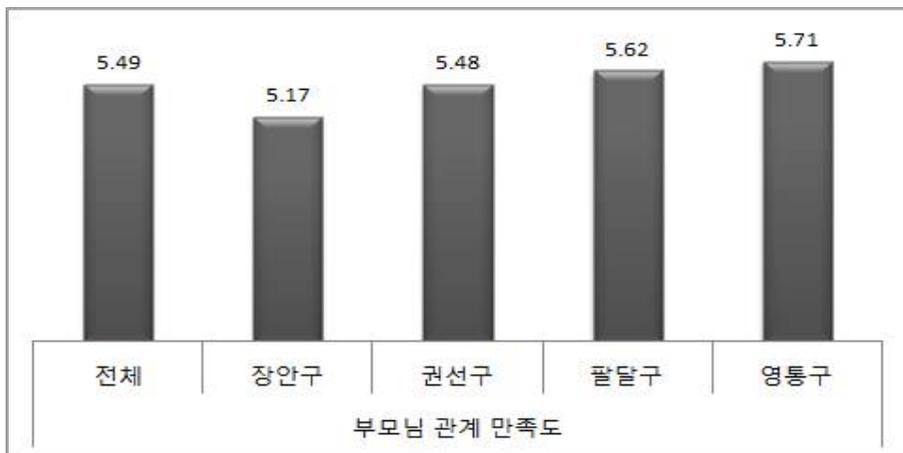
〈표 3-3〉 이웃관계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이웃관계	장안구	160	3.81ab	1.505	6.332	.000	
	권선구	169	4.23b	1.102			
	팔달구	101	3.77a	1.250			
	영통구	170	3.60a	1.547			
	전체	600	3.86	1.392			
세부 요인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	장안구	160	4.07	1.675	3.752	.011
		권선구	169	4.26	1.241		
		팔달구	101	3.79	1.306		
		영통구	170	3.77	1.675		
		전체	600	3.99	1.515		
	이웃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	장안구	160	4.26ab	1.626	6.598	.000
		권선구	169	4.60b	1.187		
		팔달구	101	4.19ab	1.339		
		영통구	170	3.89a	1.606		
		전체	600	4.24	1.482		
	이웃주민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는 정도	장안구	160	3.11a	1.651	8.189	.000
		권선구	169	3.82b	1.222		
		팔달구	101	3.32a	1.400		
		영통구	170	3.12a	1.686		
		전체	600	3.35	1.538		

## 2)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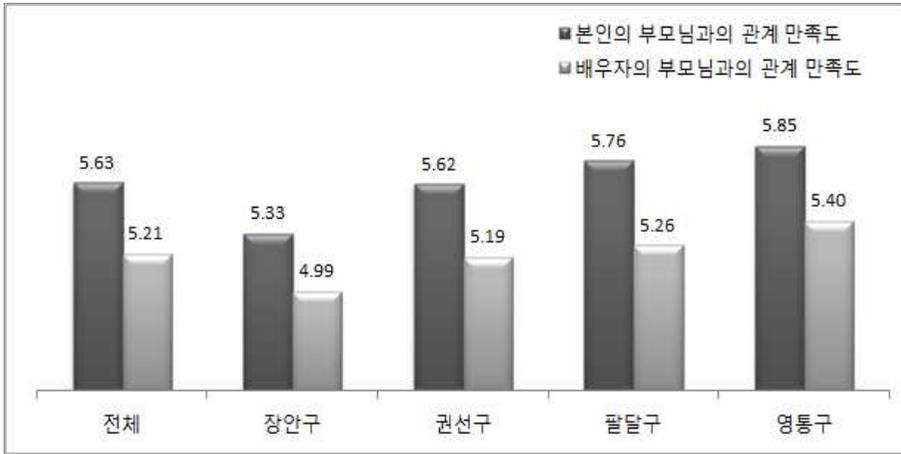
수원시민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변인의 평균값으로 전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전체 평균 5.49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영통구’가 평균 5.71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안구(평균 5.17점)’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3-4〉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는 보통 평균 5점 이상으로 대부분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모님과의 만족도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족도 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영통구’가 두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편이고, ‘장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세부영역별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전체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와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만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안구’의 경우는 ‘팔달구’, ‘영통구’와는 차이가 커서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 3-4〉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부모님 관계 만족도	장안구	124	5.17a	1.008	9.591	.000	
	권선구	142	5.48ab	.805			
	팔달구	77	5.62b	.580			
	영통구	142	5.71b	.864			
	전체	485	5.49	.872			
세부 요인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	장안구	119	5.33a	1.042	7.695	.000
		권선구	138	5.62ab	.849		
		팔달구	74	5.76b	.592		
		영통구	137	5.85b	.938		
		전체	468	5.63	.915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	장안구	75	4.99	.937	2.588	.053
		권선구	78	5.19	.869		
		팔달구	47	5.26	.642		
		영통구	78	5.40	1.085		
		전체	278	5.21	.929		

### 3) 모임활동 만족도

수원시민의 ‘모임활동 만족도’는 ‘각종 동호회 활동 만족도’와 ‘친목회 활동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변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모임활동 만족도’는 수원시 전체 평균이 5.0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높은 편인데, 그 중 ‘장안구’는 5.2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팔달구’의 경우는 4.78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 모임활동 만족도

모임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소득수준의 주효과, 거주지역의 주효과와 두 변인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데,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모임활동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모임활동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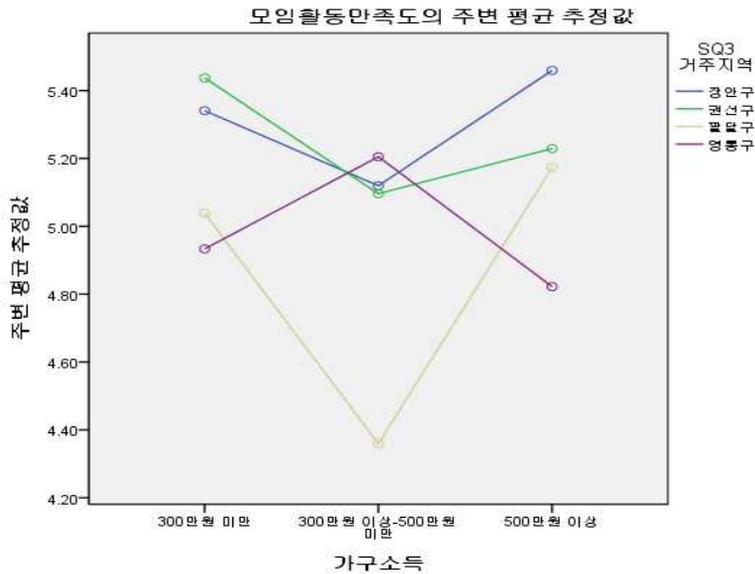
소득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300만원 미만	장안구	5.34	1.15	22
	권선구	5.44	0.81	16
	팔달구	5.04	1.01	13
	영통구	4.93	0.96	15
	합계	5.21	1.00	6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장안구	5.12	0.82	46
	권선구	5.10	0.73	52
	팔달구	4.36	0.96	32
	영통구	5.20	0.76	61
	합계	5.01	0.85	191
500만원 이상	장안구	5.46	0.67	37
	권선구	5.23	0.82	24
	팔달구	5.17	0.90	26
	영통구	4.82	0.75	45
	합계	5.14	0.81	132
합계	장안구	5.29	0.86	105
	권선구	5.19	0.77	92
	팔달구	4.78	1.01	71
	영통구	5.03	0.80	121
	합계	5.09	0.87	389

〈표 3-6〉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30.570a	11	2.779	4.015	.000	.105
절편	7980.599	1	7980.599	11530.190	.000	.968
소득수준	4.943	2	2.471	3.571	.029	.019
거주지역	10.405	3	3.468	5.011	.002	.038
소득수준 * 거주지역	15.901	6	2.650	3.829	.001	.057
오차	260.940	377	.692			
합계	10374.750	389				
수정 합계	291.510	388				

a. R 제곱 = .105 (수정된 R 제곱 =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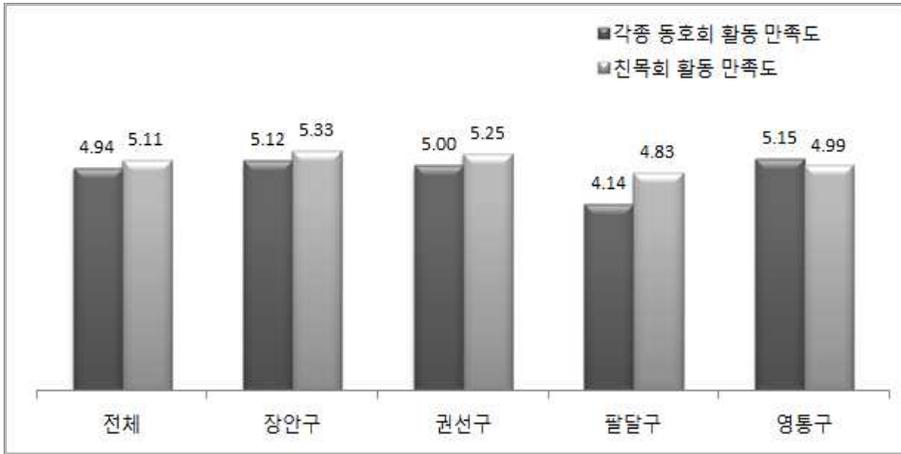
모임활동 만족도는 팔달구가 가장 낮은 편인데, 팔달구에서도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집단에 속한 수원시민의 모임활동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고 보기 힘들다.



〈그림 3-7〉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활동 만족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두 영역에서 모두 '팔달구'의 만족도가 각각 4.14점, 4.83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각종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각종 동호회 활동의 경우는 '영통구'가 5.15점으로 가장 높게 만족하고 있고, 친목회 활동의 경우는 '장안구'가 5.33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각종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보다는 친목회 활동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는데, '영통구'의 경우는 친목회 활동보다 각종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구'가 동호회 활동에 대해 만족 정도가 더 높다가보다 친목회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 세부영역별 모임활동 만족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역시 각 지역별로 모임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동호회 활동 만족도’의 경우는 ‘팔달구’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역시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 모임활동 만족도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모임활동 만족도	장안구	105	5.29b	.860	5.579	.001	
	권선구	92	5.19b	.773			
	팔달구	71	4.78a	1.013			
	영통구	121	5.03ab	.797			
	전체	389	5.09	.867			
세부 요인	각종 동호회 활동 만족도	장안구	33	5.12b	.857	7.830	.000
		권선구	25	5.00b	.816		
		팔달구	21	4.14a	1.014		
		영통구	47	5.15b	.751		
		전체	126	4.94	.906		
	친목회 활동 만족도	장안구	100	5.33b	.877	5.739	.001
		권선구	84	5.25b	.790		
		팔달구	69	4.83a	.985		
		영통구	111	4.99ab	.910		
		전체	364	5.11	.907		

## 2. 여가 및 소비

### 1) 여가활동

수원시민의 ‘여가활동’은 ‘나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여건이 된다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변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여가활동’의 수원시 전체 평균은 4.86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 중 ‘영통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팔달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3-9〉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에 교육수준의 주효과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거주지역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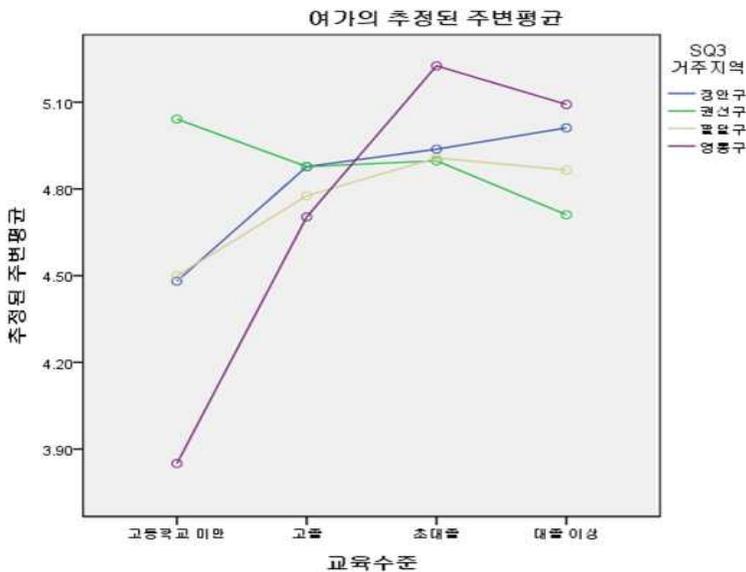
교육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고등학교 미만	장안구	4.48	1.10	26
	권선구	5.04	0.92	12
	팔달구	4.50	0.75	10
	영통구	3.85	1.16	10
	합계	4.49	1.06	58
고졸	장안구	4.88	0.80	57
	권선구	4.88	0.61	61
	팔달구	4.78	0.72	38
	영통구	4.70	0.81	64
	합계	4.81	0.74	220
초대졸	장안구	4.94	0.77	32
	권선구	4.90	0.64	39
	팔달구	4.91	0.90	27
	영통구	5.23	0.77	31
	합계	4.99	0.77	129
대졸 이상	장안구	5.01	0.82	45
	권선구	4.71	0.91	57
	팔달구	4.87	0.56	26
	영통구	5.09	0.84	65
	합계	4.93	0.83	193
합계	장안구	4.86	0.87	160
	권선구	4.84	0.75	169
	팔달구	4.81	0.74	101
	영통구	4.90	0.89	170
	합계	4.86	0.82	600

〈표 3-9〉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27.763a	15	1.851	2.871	.000	.069
절편	9540.710	1	9540.710	14798.219	.000	.962
교육수준	10.999	3	3.666	5.687	.001	.028
거주지역	1.616	3	.539	.836	.475	.004
교육수준 * 거주지역	15.499	9	1.722	2.671	.005	.040
오차	376.517	584	.645			
합계	14551.750	600				
수정 합계	404.280	599				

a. R 제곱 = .069 (수정된 R 제곱 =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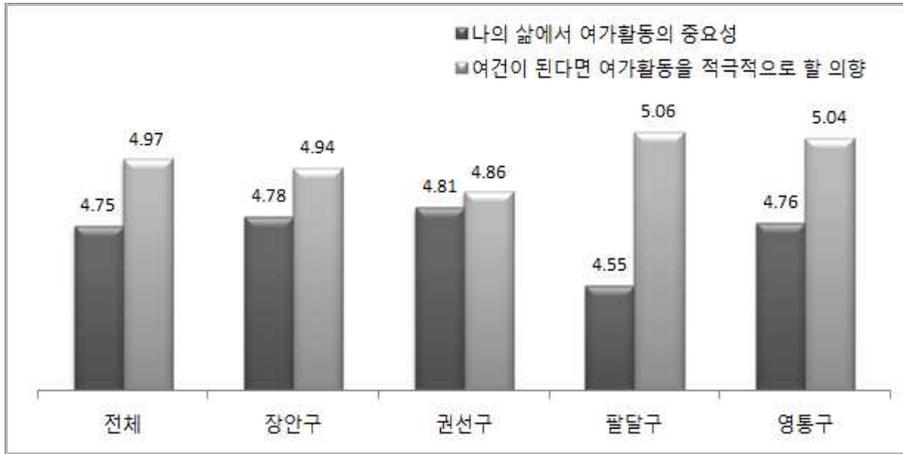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영통구’의 경우는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고, ‘초대졸’ 이상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활동

세부 영역 별로 살펴보면 ‘나의 삶에서 여가의 중요성’은 ‘팔달구’가 4.55 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권선구’가 4.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건이 된다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권선구’가 4.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팔달구가 5.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권선구’는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으나, 의향은 낮은 편이었고, ‘팔달구’는 중요성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의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세부영역별 여가활동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나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여건이 된다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 그리고 평균값인 ‘여가활동’ 모두에서 각 지역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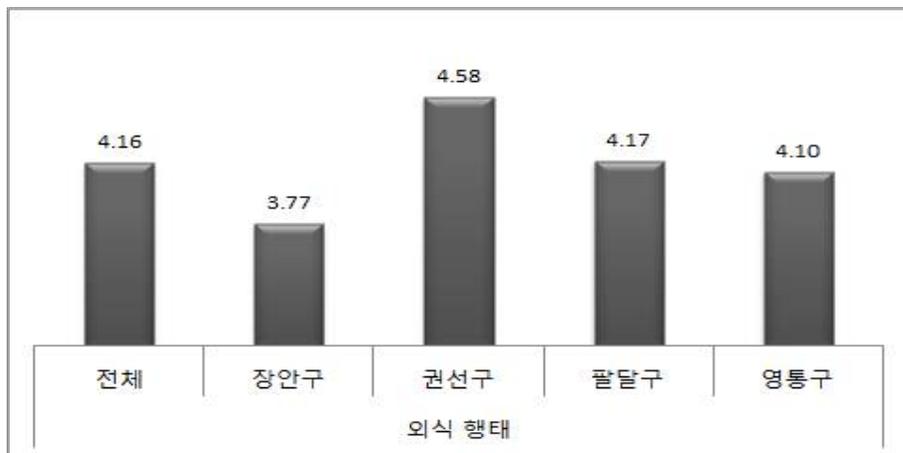
〈표 3-10〉 여가활동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여가활동	장안구	160	4.86	.865	.293	.830	
	권선구	169	4.84	.753			
	팔달구	101	4.81	.738			
	영통구	170	4.90	.894			
	전체	600	4.86	.822			
세부 요인	나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	장안구	160	4.78	1.050	1.677	.171
		권선구	169	4.81	.845		
		팔달구	101	4.55	.830		
		영통구	170	4.76	1.047		
		전체	600	4.75	.962		
	여건이 된다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	장안구	160	4.94	.992	1.216	.303
		권선구	169	4.86	.919		
		팔달구	101	5.06	.915		
		영통구	170	5.04	1.076		
		전체	600	4.97	.985		

## 2) 외식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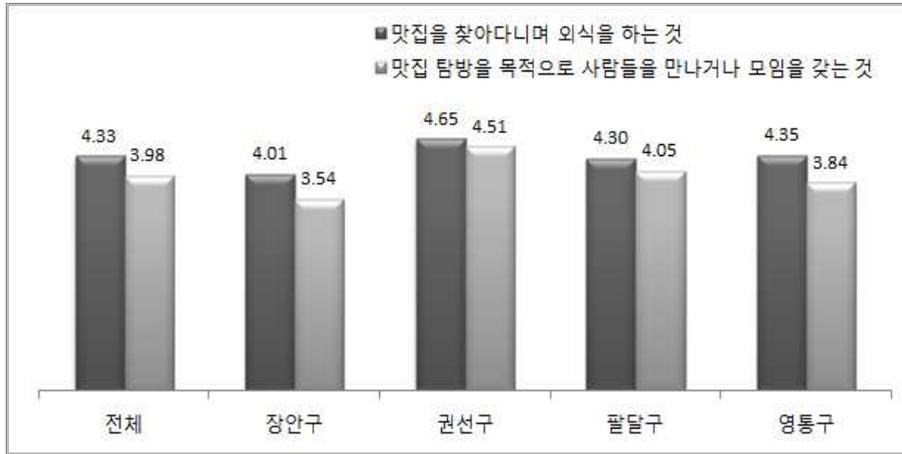
수원시민의 ‘외식 행태’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하는 것’과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변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외식행태’는 수원시 전체 평균이 4.16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미세하게 높은 편이다. 그 중 ‘권선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장안구’의 경우 평균 3.7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3-12〉 외식행태

세부 영역 별로 살펴보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하는 것’에서는 ‘권선구’가 4.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안구는 4.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에서도 역시 ‘권선구’가 4.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안구’가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다소 큰 편이었다.



〈그림 3-13〉 세부영역별 외식행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세부항목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하는 것’과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 둘 모두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값인 ‘외식행태’에도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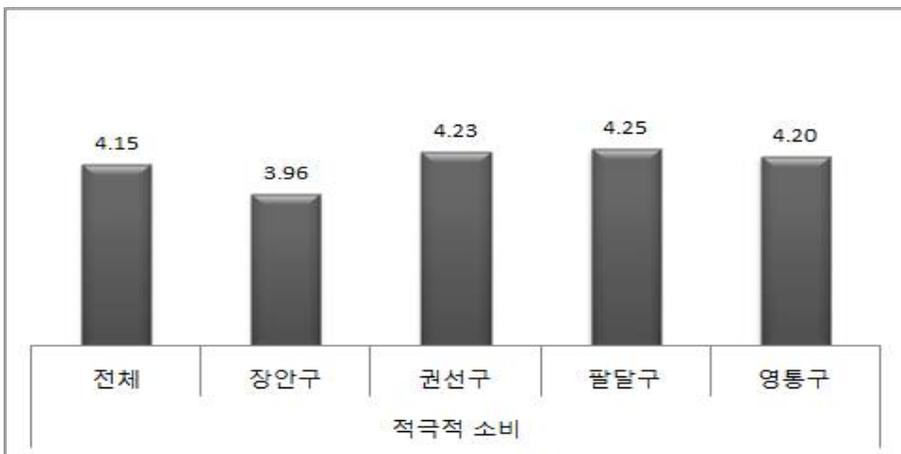
〈표 3-11〉 외식행태 관련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외식 행태	장안구	158	3.77a	1.310	13.682	.000	
	권선구	167	4.58c	.916			
	팔달구	101	4.17b	.926			
	영통구	168	4.10ab	1.302			
	전체	594	4.16	1.184			
세부 요인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하는 것	장안구	158	4.01a	1.521	6.688	.000
		권선구	167	4.65ab	.951		
		팔달구	101	4.30b	1.162		
		영통구	168	4.35ab	1.419		
		전체	594	4.33	1.310		
	맛집 탐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	장안구	158	3.54a	1.357	17.173	.000
		권선구	167	4.51c	1.069		
		팔달구	101	4.05b	1.099		
		영통구	168	3.84ab	1.437		
		전체	594	3.98	1.316		

### 3) 쇼핑 행태1\_적극적 소비

수원시민의 ‘쇼핑 행태’는 일차적으로 ‘적극적 소비’와 ‘습관적 소비’로 분류해서 구성하였다. 먼저 ‘적극적 소비’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여부’와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 선호여부’,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여부’, ‘즐겨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가지 변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적극적 소비’의 정도는 ‘장안구’가 3.9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달구’가 4.2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적극적 소비

적극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 소비에 소득수준의 주효과와 거주지역의 주효과, 그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12〉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소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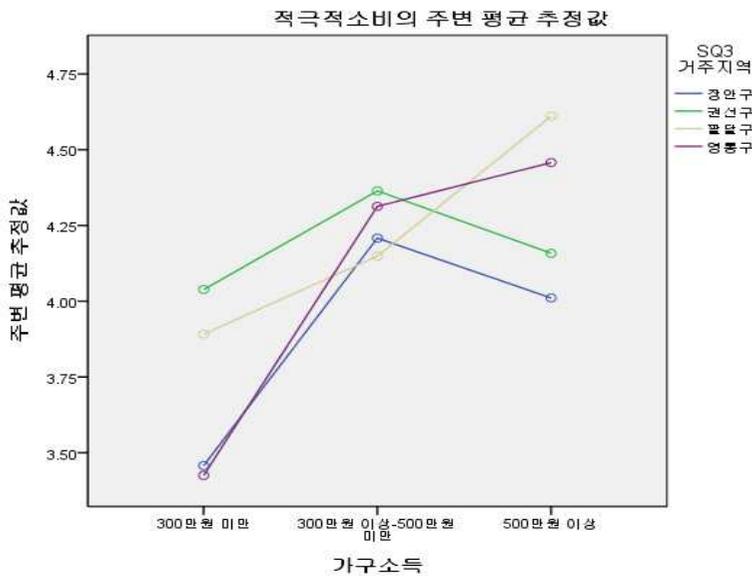
소득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300만원 미만	장안구	3.46	1.33	41
	권선구	4.04	0.99	39
	팔달구	3.89	0.81	23
	영통구	3.43	1.07	30
	합계	3.70	1.12	1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장안구	4.21	0.92	72
	권선구	4.36	0.86	81
	팔달구	4.15	0.71	42
	영통구	4.31	1.04	87
	합계	4.28	0.92	282
500만원 이상	장안구	4.01	0.93	47
	권선구	4.16	0.97	49
	팔달구	4.61	0.62	36
	영통구	4.46	0.91	53
	합계	4.29	0.91	185
합계	장안구	3.96	1.08	160
	권선구	4.23	0.93	169
	팔달구	4.25	0.75	101
	영통구	4.20	1.07	170
	합계	4.15	0.99	600

〈표 3-1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소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57.321a	11	5.211	5.751	.000	.097
절편	8706.713	1	8706.713	9608.363	.000	.942
소득수준	32.870	2	16.435	18.137	.000	.058
거주지역	8.906	3	2.969	3.276	.021	.016
소득수준 * 거주지역	14.243	6	2.374	2.620	.016	.026
오차	532.822	588	.906			
합계	10940.250	600				
수정 합계	590.143	599				

a. R 제곱 = .097 (수정된 R 제곱 = .080)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차 그래프를 확인해 본 결과, ‘장안구’와 ‘영통구’는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적극적 소비양태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장안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 소비’ 정도가 낮지만, ‘영통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소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팔달구’의 경우도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소비’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적극적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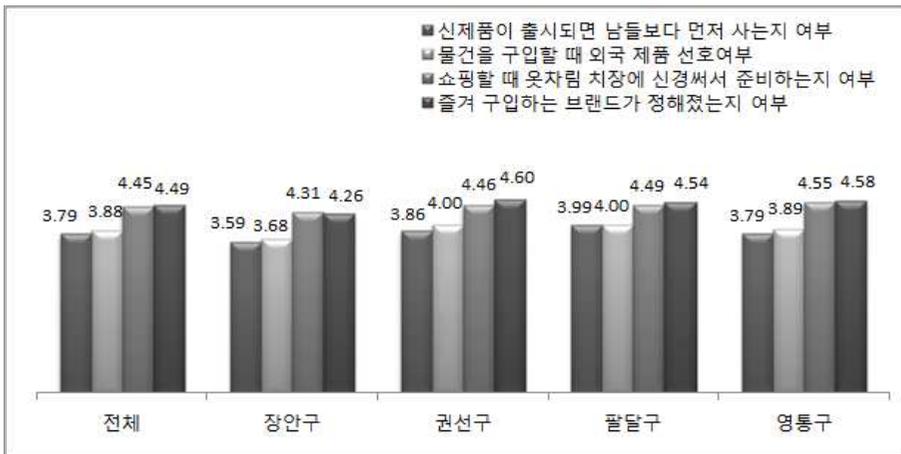
네 가지 세부항목 ‘신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여부’와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 선호여부’,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여부’, ‘즐거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 모두에서 ‘장안구’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각각 3.59점, 3.68점, 4.31점, 4.26점).

‘신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여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보통(4점)보다 낮았는데, ‘팔달구’가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 비해 얼리어답터적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 선호여부’에서는 역시 보통 보다는 약간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권선구’와 ‘팔달구’가 4.00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여부’에서는 4.55점으로 ‘영통구’가 높게 나타났고, ‘즐거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에서는 4.60점으로 ‘권선구’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림 3-16〉 세부영역별 적극적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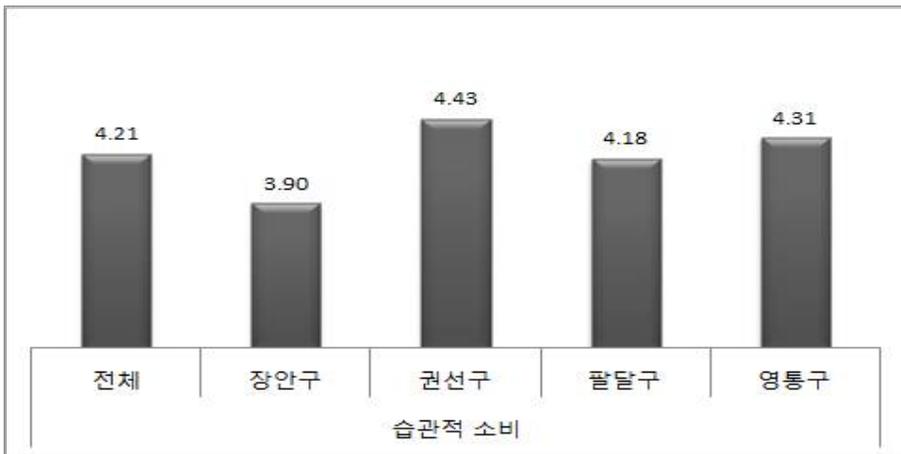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세부항목 중 ‘즐거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에서만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의 평균값인 ‘적극적 소비’에서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을 해 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아 모든 지역이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적극적 소비’행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4〉 쇼핑 행태1\_적극적 소비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	
적극적 소비	장안구	160	3.96	1.083	2.913	.034	
	권선구	169	4.23	.930			
	팔달구	101	4.25	.751			
	영통구	170	4.20	1.069			
	전체	600	4.15	.993			
세부 요인	신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사는지 여부	장안구	160	3.59	1.527	2.125	.096
		권선구	169	3.86	1.263		
		팔달구	101	3.99	.985		
		영통구	170	3.79	1.423		
		전체	600	3.79	1.349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 선호여부	장안구	160	3.68	1.421	1.761	.153
		권선구	169	4.00	1.358		
		팔달구	101	4.00	1.273		
		영통구	170	3.89	1.548		
		전체	600	3.88	1.420		
	쇼핑할 때 옷차림 치장에 신경써서 준비하는지 여부	장안구	160	4.31	1.198	1.267	.285
		권선구	169	4.46	1.085		
		팔달구	101	4.49	.879		
		영통구	170	4.55	1.197		
		전체	600	4.45	1.119		
	즐거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졌는지 여부	장안구	160	4.26	1.402	2.966	.032
		권선구	169	4.60	1.071		
		팔달구	101	4.54	.975		
		영통구	170	4.58	1.175		
		전체	600	4.49	1.188		

#### 4) 쇼핑 행태2\_습관적 소비

수원시민의 ‘쇼핑 행태’중 ‘습관적 소비’는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 지 여부’와 ‘충동구매 여부’, ‘일상생활용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지 여부’,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네 가지 세부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다. 수원시 전체는 4.2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권선구’가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안구가 3.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7〉 습관적 소비

습관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습관적 소비에 소득수준의 주효과와 거주지역의 주효과, 그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고유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두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소비 평균(표준편차)

소득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300만원 미만	장안구	3.45	1.25	41
	권선구	4.33	0.75	39
	팔달구	4.07	0.74	23
	영통구	3.83	1.11	30
	합계	3.90	1.06	1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장안구	4.25	0.90	72
	권선구	4.47	0.80	81
	팔달구	3.95	0.69	42
	영통구	4.32	1.01	87
	합계	4.29	0.89	282
500만원 이상	장안구	3.77	1.03	47
	권선구	4.44	0.66	49
	팔달구	4.53	0.54	36
	영통구	4.58	0.84	53
	합계	4.33	0.86	185
합계	장안구	3.90	1.08	160
	권선구	4.43	0.75	169
	팔달구	4.18	0.70	101
	영통구	4.31	1.01	170
	합계	4.21	0.94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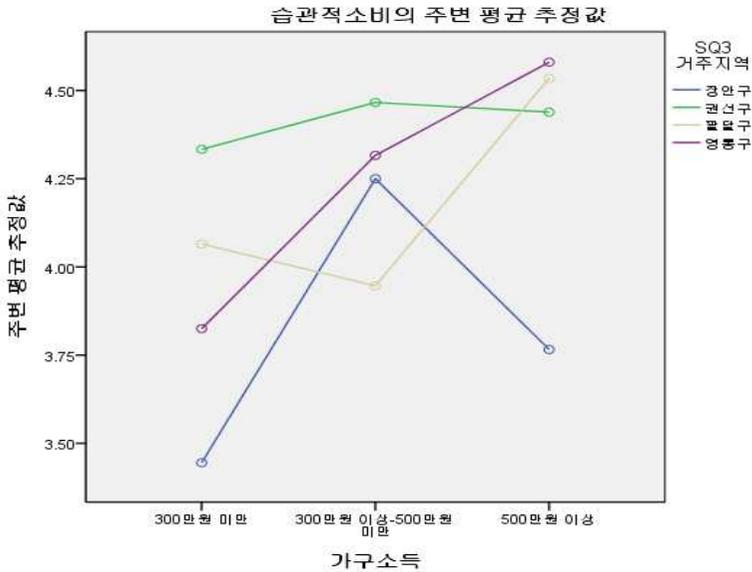
〈표 3-16〉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소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61.715a	11	5.610	7.103	.000	.117
절편	9022.712	1	9022.712	11422.191	.000	.951
소득수준	13.665	2	6.833	8.650	.000	.029
거주지역	28.234	3	9.411	11.914	.000	.057
소득수준 * 거주지역	21.111	6	3.518	4.454	.000	.043
오차	464.478	588	.790			
합계	11177.500	600				
수정 합계	526.193	599				

a. R 제곱 = .117 (수정된 R 제곱 = .101)

‘습관적소비’경향은 ‘장안구’와 ‘팔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차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장안구’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습관적소비’ 특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팔달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에 ‘습관적소비’경향이 낮아졌다. ‘영통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습관적소비’ 패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독특하게도 ‘권선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습관적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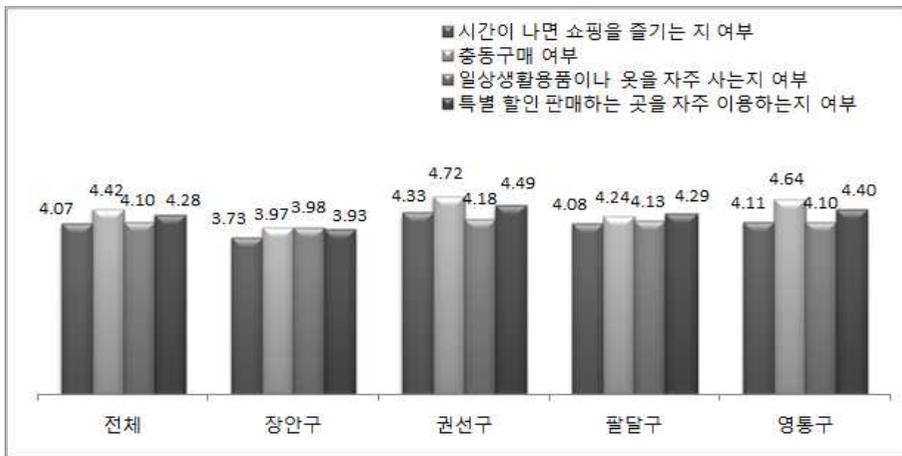
〈그림 3-18〉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습관적 소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 지 여부’에서는 ‘장안구’가 3.73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권선구’가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충동구매 여부’에서도 ‘장안구’가 3.97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권선구’가 4.7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일상생활용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지 여부’에서도 ‘장안구’가 3.9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권선구’가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에서도 ‘장안구’가 3.93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권선구’가 4.4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종합해보면 네 가지 세부항목 모두에서 ‘장안구’는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고 ‘권선구’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림 3-19〉 세부영역별 습관적 소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 지 여부’와 ‘충동구매 여부’,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세 가지 세부항목에서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인 ‘습관적 소비’에서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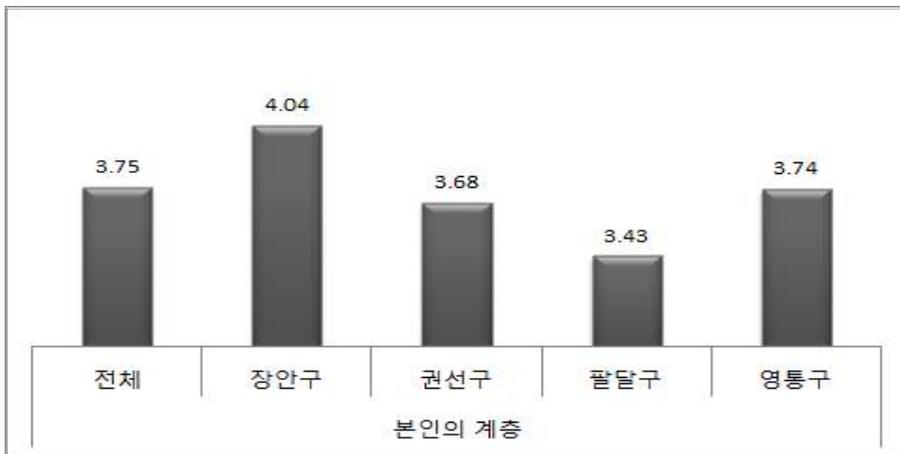
〈표 3-17〉 쇼핑 행태2\_습관적 소비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	
습관적 소비	장안구	160	3.90a	1.084	9.928	.000	
	권선구	169	4.43b	.747			
	팔달구	101	4.18ab	.699			
	영통구	170	4.31b	1.008			
	전체	600	4.21	.937			
세부 요인	시간이 나면 쇼핑을 즐기는 지 여부	장안구	160	3.73a	1.321	5.969	.001
		권선구	169	4.33b	1.228		
		팔달구	101	4.08ab	1.102		
		영통구	170	4.11ab	1.439		
		전체	600	4.07	1.313		
	충동구매 여부	장안구	160	3.97a	1.460	13.381	.000
		권선구	169	4.72b	.983		
		팔달구	101	4.24a	1.001		
		영통구	170	4.64b	1.276		
		전체	600	4.42	1.250		
	일상생활용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지 여부	장안구	160	3.98	1.430	.786	.502
		권선구	169	4.18	1.087		
		팔달구	101	4.13	.845		
		영통구	170	4.10	1.215		
		전체	600	4.10	1.190		
	특별 할인 판매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장안구	160	3.93a	1.381	7.565	.000
		권선구	169	4.49b	.907		
		팔달구	101	4.29ab	.973		
		영통구	170	4.40b	1.204		
		전체	600	4.28	1.163		

### 3. 계층의식

#### 1) 본인의 계층의식

수민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계층의식은 전체 평균 3.7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팔달구’의 경우 3.43점으로 가장 낮게 본인의 계층을 인식하고 있었고, ‘장안구’가 4.04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장 높게 인식하는 편이나, 전반적으로 계층의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집단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0〉 본인의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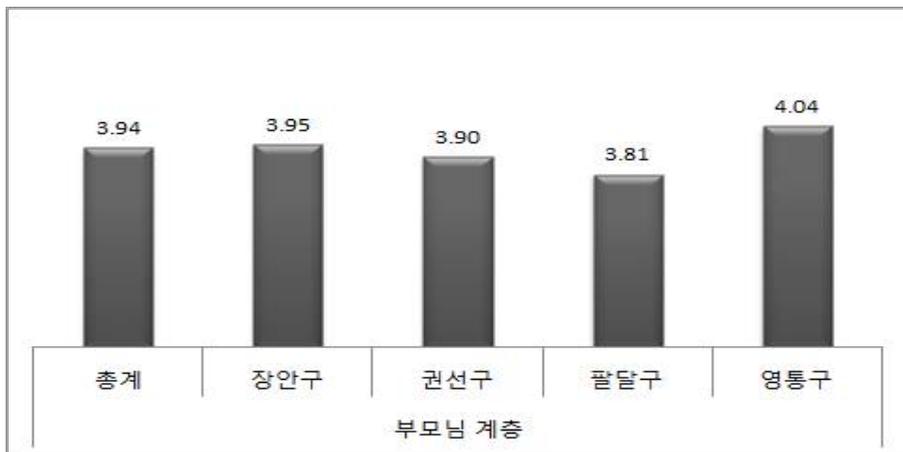
〈표 3-18〉 본인의 계층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본인의 계층	장안구	160	4.04b	.974	8.853	.000
	권선구	169	3.68a	.954		
	팔달구	101	3.43a	.963		
	영통구	170	3.74ab	1.005		
	전체	600	3.75	.994		

## 2) 부모님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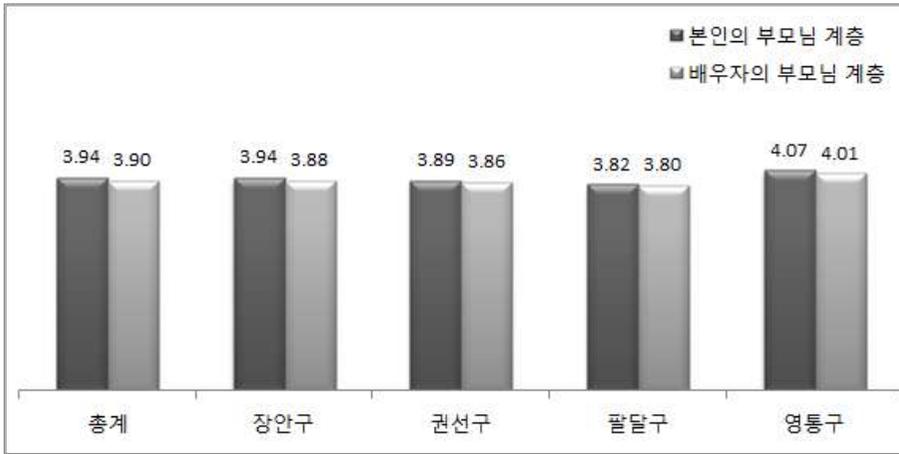
수원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계층은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의 계층’으로 나뉘는데, 두 값의 평균으로 전체 ‘부모님 계층’변인을 구성하였다.

수원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모님의 계층은 본인의 계층의식과 유사하게 평균 3.94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계층보다는 부모님의 계층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안구’의 경우는 부모님의 계층보다 본인의 계층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안구의 연령 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 부모님 계층

세부영역별로 ‘본인의 부모님 계층’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계층’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모님 계층’보다 ‘본인의 부모님 계층’을 약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22〉 세부영역별 부모님 계층

〈표 3-19〉 부모님의 계층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부모님의 계층	장안구	129	3.95	.88486	1.162	.324	
	권선구	144	3.90	1.00849			
	팔달구	78	3.81	.59275			
	영통구	144	4.04	1.03691			
	전체	495	3.94	.93243			
세부 요인	본인의 부모님 계층	장안구	125	3.94	.940	1.380	.248
		권선구	141	3.89	1.036		
		팔달구	76	3.82	.706		
		영통구	139	4.07	1.088		
		전체	481	3.94	.984		
	배우자의 부모님 계층	장안구	82	3.88	1.011	.585	.625
		권선구	83	3.86	1.014		
		팔달구	50	3.80	.535		
		영통구	81	4.01	1.146		
		전체	296	3.90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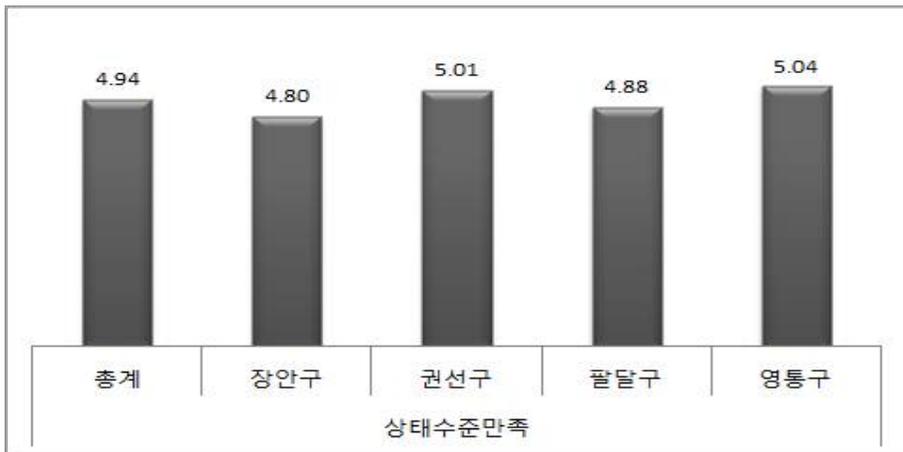
## 제2절 삶의 질

### 1. 개인 수준의 삶의 질

#### 1) 상태수준 만족

개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미분화척도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로 파악할 수 있다. ‘지루하다-재미있다’, ‘궁핍하다-넉넉하다’, ‘불행하다-행복하다’, ‘어리석다-현명하다’, ‘매어있다-자유롭다’, ‘절망적이다-희망적이다’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상태수준 만족’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에 수원시민의 ‘상태수준 만족’은 전체 평균 4.94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영통구’와 ‘권선구’의 경우는 5점 이상의 만족을 보이고 있어, 현재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상태수준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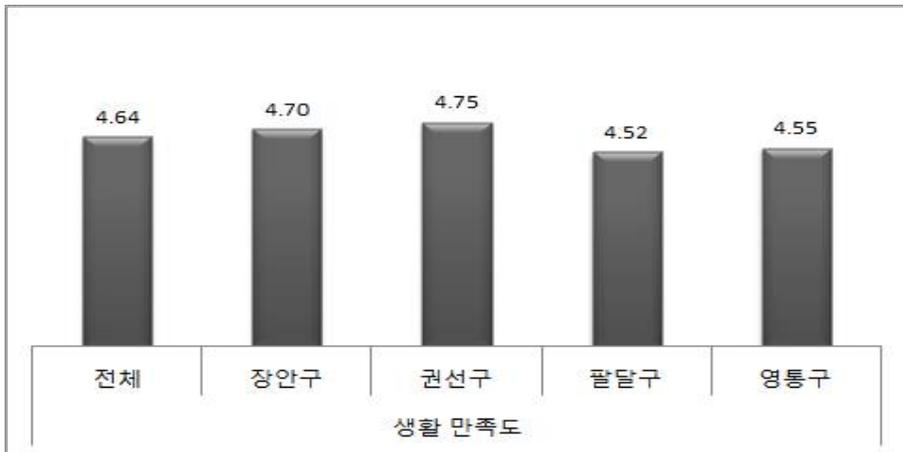
〈표 3-20〉 상태수준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	
상태수준 만족	장안구	160	4.80	.77617	3.711	.012	
	권선구	169	5.01	.73489			
	팔달구	101	4.88	.60934			
	영통구	170	5.04	.74834			
	전체	600	4.94	.73573			
세부 요인	상태수준1 (지루하다-재미있다)	장안구	160	4.68a	1.078	5.244	.001
		권선구	169	4.96ab	.963		
		팔달구	101	4.79ab	.864		
		영통구	170	5.09b	1.056		
		전체	600	4.90	1.017		
	상태수준2 (궁핍하다-넉넉하다)	장안구	160	4.49a	1.003	5.729	.001
		권선구	169	4.90b	.968		
		팔달구	101	4.48a	1.045		
		영통구	170	4.72ab	1.089		
		전체	600	4.67	1.038		
	상태수준3 (불행하다-행복하다)	장안구	160	4.96	1.066	2.049	.106
		권선구	169	5.06	.930		
		팔달구	101	5.01	.742		
		영통구	170	5.21	.972		
		전체	600	5.07	.955		
	상태수준4 (어리석다-현명하다)	장안구	160	4.86	1.207	2.726	.043
		권선구	169	5.06	.980		
		팔달구	101	4.82	.876		
		영통구	170	5.09	.879		
		전체	600	4.98	1.008		
	상태수준5 (매어있다-자유롭다)	장안구	160	4.79a	1.360	3.137	.025
		권선구	169	5.00ab	1.097		
		팔달구	101	5.21b	.909		
		영통구	170	4.81ab	1.377		
		전체	600	4.93	1.235		
상태수준6 (절망적이다-희망적이다)	장안구	160	5.03ab	.914	4.472	.004	
	권선구	169	5.08ab	.909			
	팔달구	101	4.98a	.721			
	영통구	170	5.32b	.921			
	전체	600	5.12	.893			

## 2) 생활 만족도

수원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상태 만족수준’, ‘재정상태 만족수준’, ‘가정생활 만족수준’, ‘사회생활 만족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영역의 평균값으로 ‘생활환경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수원시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4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 평균차이를 검증했을 때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뚜렷한 집단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즉 평균값으로는 생활환경 만족도가 ‘권선구’의 경우 4.75점으로 가장 높고, ‘팔달구’가 4.52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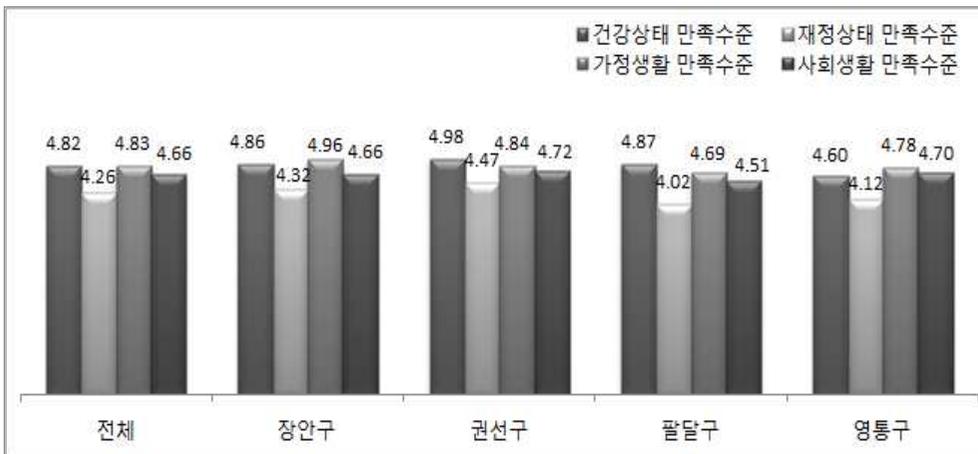
〈그림 3-24〉 생활만족도

구체적으로 ‘생활 만족도’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만족수준’과 ‘재정상태 만족수준’의 영역에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권선구’가 평균 4.89점으로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통구’의 경우 평균 4.6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안구’와 ‘팔달구’의 경우는 두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약간 긍정적인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팔달구’의 경우 평균 4.02점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권선구’의 경우도 4.47점으로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이 다른 생활수준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5〉 세부영역별 생활만족도

지역별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을 한 결과 전체 ‘건강상태 만족수준’, ‘재정상태 만족수준’에 대해 집단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 만족수준’에 대해서는 ‘권선구’와 ‘영통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정상태 만족수준’에 대해서는 ‘권선구’와 ‘팔달구’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그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는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표 3-21〉 지역별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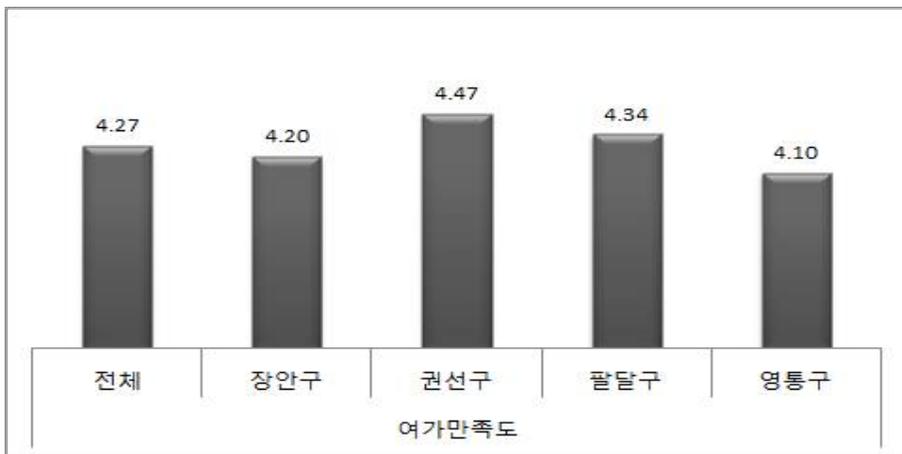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생활 만족도	장안구	160	4.70	.759	3.810	.010	
	권선구	169	4.75	.590			
	팔달구	101	4.52	.567			
	영통구	170	4.55	.761			
	전체	600	4.64	.690			
세부 요인	건강상태 만족수준	장안구	160	4.86ab	1.135	4.171	.006
		권선구	169	4.98b	.852		
		팔달구	101	4.87ab	.868		
		영통구	170	4.60a	1.122		
		전체	600	4.82	1.024		
	재정상태 만족수준	장안구	160	4.32bc	.893	7.234	.000
		권선구	169	4.47c	.839		
		팔달구	101	4.02a	.848		
		영통구	170	4.12ab	.962		
		전체	600	4.26	.905		
	가정생활 만족수준	장안구	160	4.96	.983	2.181	.089
		권선구	169	4.84	.759		
		팔달구	101	4.69	.784		
		영통구	170	4.78	.951		
		전체	600	4.83	.886		
	사회생활 만족수준	장안구	160	4.66	.924	1.260	.287
		권선구	169	4.72	.811		
		팔달구	101	4.51	.673		
		영통구	170	4.70	1.002		
		전체	600	4.66	.880		

### 3) 여가생활 만족도

수원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여가활동 충분성’과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영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27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권선구’가 4.47점으로 가장 높고, ‘영통구’가 4.10점으로 여가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다.

수원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권선구’와 ‘팔달구’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장안구’와 ‘영통구’는 평균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지각수준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가활동의 정도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림 3-26〉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주효과는 없었고, 거주지역의 주효과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22〉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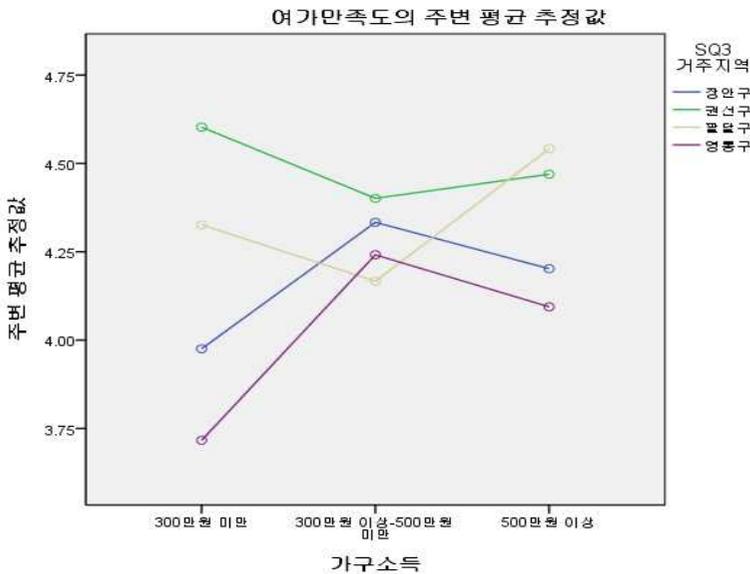
소득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300만원 미만	장안구	3.98	1.01	41
	권선구	4.60	0.77	39
	팔달구	4.33	0.68	23
	영통구	3.72	1.22	30
	합계	4.16	1.00	1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장안구	4.33	0.98	72
	권선구	4.40	0.86	81
	팔달구	4.17	0.68	42
	영통구	4.24	0.96	87
	합계	4.30	0.90	282
500만원 이상	장안구	4.20	1.12	47
	권선구	4.47	0.68	49
	팔달구	4.54	0.65	36
	영통구	4.09	0.95	53
	합계	4.31	0.90	185
합계	장안구	4.20	1.03	160
	권선구	4.47	0.79	169
	팔달구	4.34	0.68	101
	영통구	4.10	1.02	170
	합계	4.27	0.92	600

〈표 3-2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25.783a	11	2.344	2.854	.001	.051
절편	9425.889	1	9425.889	11476.533	.000	.951
소득수준	2.311	2	1.156	1.407	.246	.005
거주지역	18.403	3	6.134	7.469	.000	.037
소득수준 * 거주지역	10.831	6	1.805	2.198	.042	.022
오차	482.935	588	.821			
합계	11457.000	600				
수정 합계	508.718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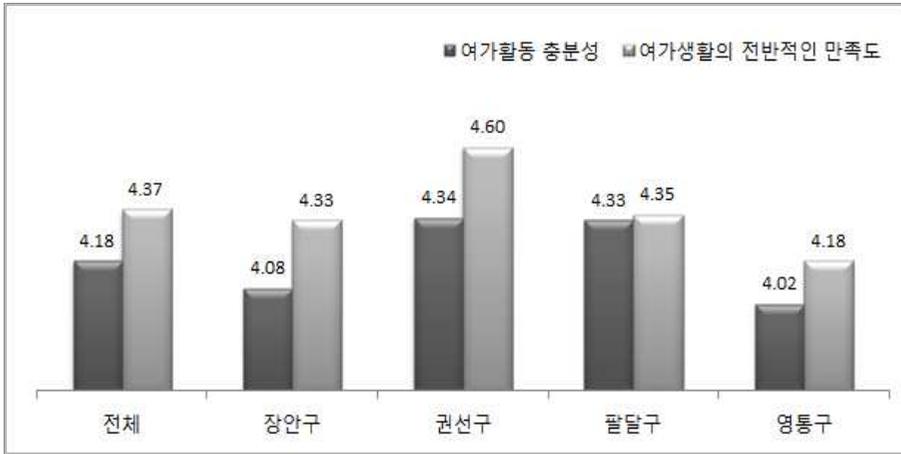
a. R 제곱 = .051 (수정된 R 제곱 = .033)

여가생활 만족도에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패턴이 ‘권선구’와 ‘팔달구’가 유사하고, ‘장안구’와 ‘영통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통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심지어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그림 3-27〉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일반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여가활동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가생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달구’의 경우는 ‘여가활동 충분성’과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팔달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양보다는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영통구’의 경우는 ‘여가활동의 충분성’과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두 영역이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영통구’의 여가활동의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3-28〉 세부영역별 여가생활 만족도

지역별 ‘여가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세부요인들을 비롯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동 충분성’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 집단 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여가 만족도’와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권선구’와 ‘영통구’만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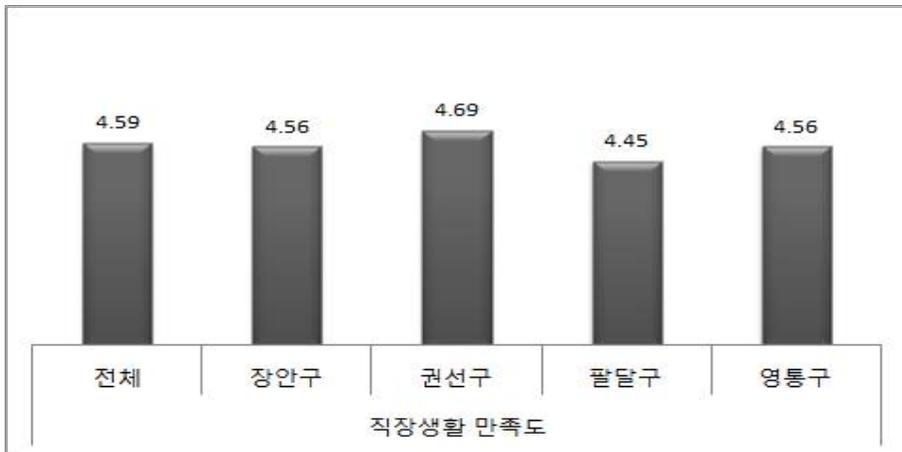
〈표 3-24〉 지역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	
여가생활 만족도	장안구	160	4.20ab	1.031	5.003	.002	
	권선구	169	4.47b	.789			
	팔달구	101	4.34ab	.682			
	영통구	170	4.10a	1.020			
	전체	600	4.27	.922			
세부요인	여가활동 충분성	장안구	160	4.08	1.223	3.550	.014
		권선구	169	4.34	.944		
		팔달구	101	4.33	.750		
		영통구	170	4.02	1.171		
		전체	600	4.18	1.072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장안구	160	4.33ab	1.096	5.105	.002
		권선구	169	4.60b	.882		
		팔달구	101	4.35ab	.793		
		영통구	170	4.18a	1.097		
		전체	600	4.37	1.003		

#### 4)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총 5가지 하위 영역으로 측정된다. ‘노동 강도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소득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하위 영역의 평균값으로 ‘직장생활 만족도’를 구성하였다.

수원시민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점 만점에 4.5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권선구’였으며, 다른 지역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3-29〉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주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만 유의하였고, 거주지역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직장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25〉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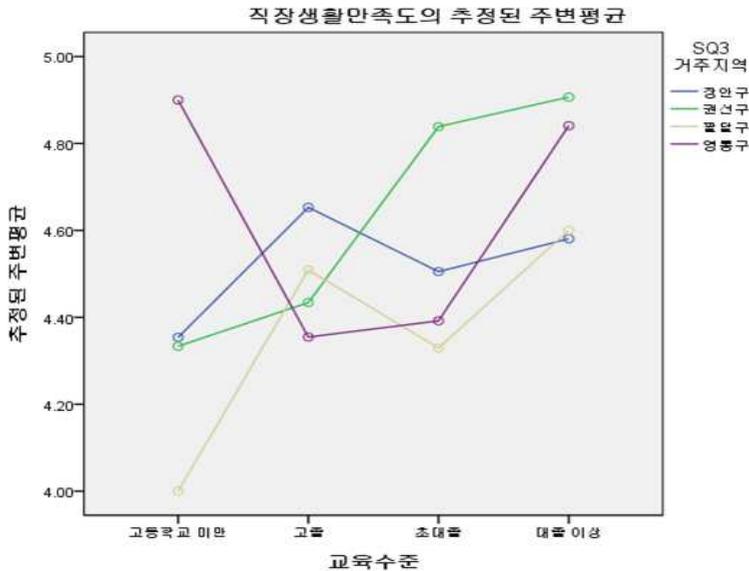
교육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고등학교 미만	장안구	4.35	0.62	13
	권선구	4.33	0.69	6
	팔달구	4.00	0.35	3
	영통구	4.90	0.60	4
	합계	4.39	0.63	26
고졸	장안구	4.65	0.64	34
	권선구	4.43	0.60	47
	팔달구	4.51	0.38	22
	영통구	4.35	0.75	44
	합계	4.47	0.64	147
초대졸	장안구	4.51	0.55	19
	권선구	4.84	0.50	31
	팔달구	4.33	0.41	17
	영통구	4.39	0.67	25
	합계	4.55	0.58	92
대졸 이상	장안구	4.58	0.64	31
	권선구	4.91	0.63	45
	팔달구	4.60	0.44	14
	영통구	4.84	0.83	44
	합계	4.78	0.70	134
합계	장안구	4.56	0.62	97
	권선구	4.69	0.63	129
	팔달구	4.45	0.42	56
	영통구	4.56	0.79	117
	합계	4.59	0.66	399

〈표 3-26〉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17.884a	15	1.192	2.959	.000	.104
절편	4115.976	1	4115.976	10213.763	.000	.964
교육수준	4.563	3	1.521	3.774	.011	.029
거주지역	1.849	3	.616	1.529	.206	.012
교육수준 * 거주지역	7.799	9	.867	2.150	.025	.048
오차	154.343	383	.403			
합계	8572.800	399				
수정 합계	172.227	398				

a. R 제곱 = .104 (수정된 R 제곱 =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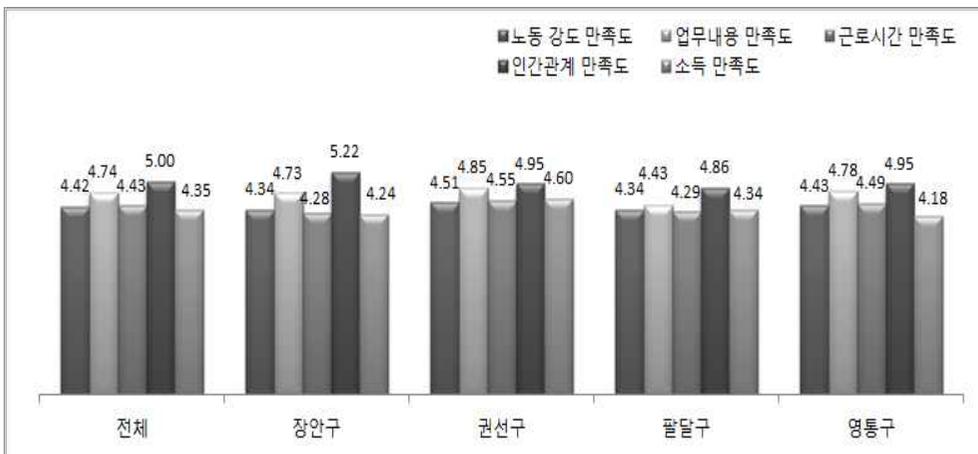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의 교차 그래프를 살펴보면, '영통구'의 경우는 '고등학교 미만'과 '대졸 이상'의 집단이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그 외의 지역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일 때 직장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선구'는 '고등학교 미만'과 '고졸'의 경우는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초대졸' 이상이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림 3-30〉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직장생활 만족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업무 내용 만족도’와 ‘인간관계 만족도’ 그리고 ‘소득 만족도’였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여 분류되는 영역은 ‘업무 내용 만족도’와 ‘소득 만족도’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팔달구’가 평균 4.4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권선구’가 4.5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만족은 역시 ‘권선구’가 4.60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영통구’가 4.18점이었다. 직장생활에 있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영통구’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소득 만족도’가 낮아 전반적인 직장생활 만족이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세부영역별 직장생활 만족도

〈표 3-27〉 지역별 직장생활도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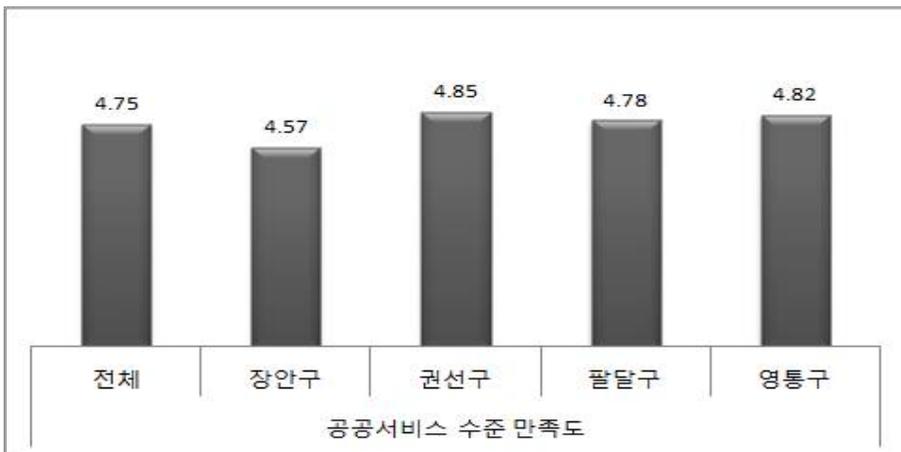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직장생활 만족도	장안구	97	4.56	.619	2.007	.112	
	권선구	129	4.69	.631			
	팔달구	56	4.45	.420			
	영통구	117	4.56	.789			
	전체	399	4.59	.658			
세부 요인	노동 강도 만족도	장안구	97	4.34	.912	.924	.429
		권선구	129	4.51	.830		
		팔달구	56	4.34	.640		
		영통구	117	4.43	.950		
		전체	399	4.42	.864		
	업무내용 만족도	장안구	97	4.73ab	.823	3.596	.014
		권선구	129	4.85b	.830		
		팔달구	56	4.43a	.657		
		영통구	117	4.78b	.872		
		전체	399	4.74	.827		
	근로시간 만족도	장안구	97	4.28	1.038	1.916	.126
		권선구	129	4.55	.901		
		팔달구	56	4.29	.680		
		영통구	117	4.49	1.157		
		전체	399	4.43	.995		
	인간관계 만족도	장안구	97	5.22	.960	2.729	.044
		권선구	129	4.95	.794		
		팔달구	56	4.86	.672		
		영통구	117	4.95	.990		
		전체	399	5.00	.888		
	소득 만족도	장안구	97	4.24ab	.987	4.520	.004
		권선구	129	4.60b	.914		
		팔달구	56	4.34ab	.640		
		영통구	117	4.18a	1.103		
전체		399	4.35	.973			

## 2. 물리적 환경 만족도

### 1)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수원시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은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행정서비스 제공 만족도’, ‘안전기관 충분성’,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 수행’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4.75점으로 대체로 보통 보다는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장안구’의 경우 평균 4.5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구’와 ‘영통구’는 각각 4.85점, 4.82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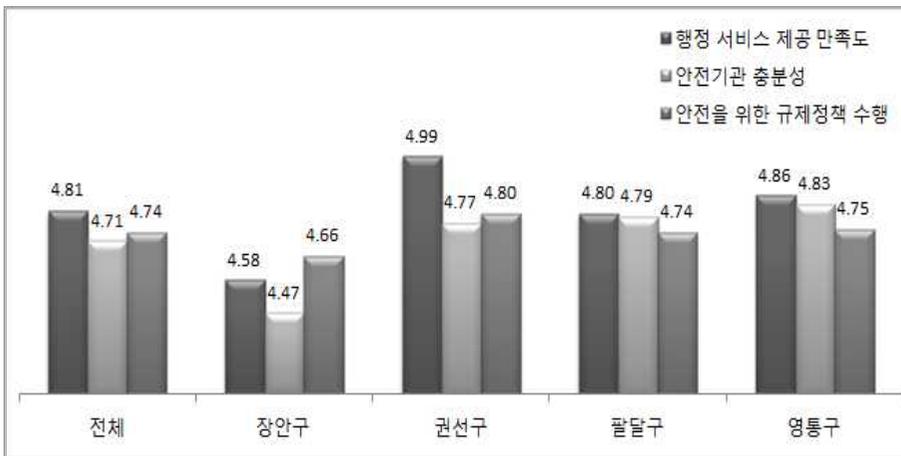


〈그림 3-32〉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 수준은 ‘권선구’가 4.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가 4.58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안전기관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영통구’가 4.8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장안구’가 4.47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지역의 평가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구’는 대체로 공공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특히 ‘행정 서비스 제공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안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안구’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33〉 세부영역별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 수행에 대한 항목만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안전기관 충분성’에 대해서 ‘장안구’가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만큼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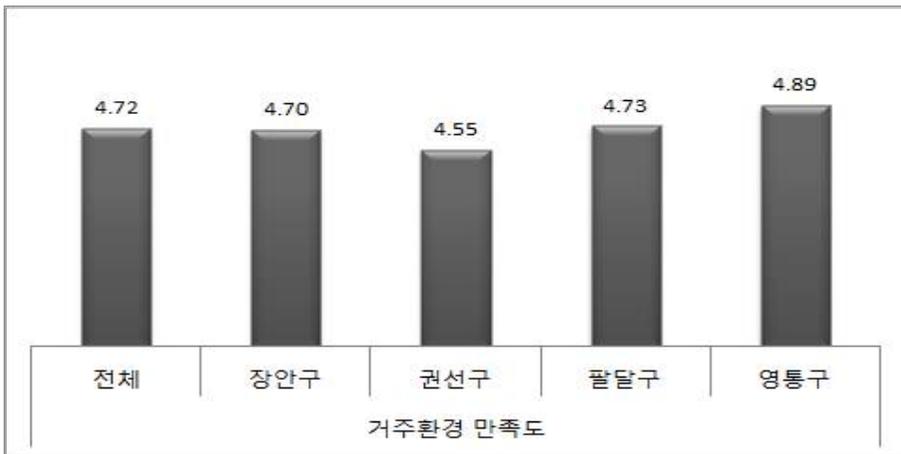
〈표 3-28〉 지역별 공공서비스수준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	장안구	160	4.57a	.856	5.348	.001	
	권선구	169	4.85b	.630			
	팔달구	101	4.78ab	.708			
	영통구	170	4.82b	.606			
	전체	600	4.75	.712			
세부요인	행정 서비스 제공 만족도	장안구	160	4.58a	1.049	6.233	.000
		권선구	169	4.99b	.779		
		팔달구	101	4.80ab	.837		
		영통구	170	4.86ab	.849		
		전체	600	4.81	.899		
	안전기관 충분성	장안구	160	4.47a	.977	5.379	.001
		권선구	169	4.77b	.886		
		팔달구	101	4.79b	.920		
		영통구	170	4.83b	.814		
		전체	600	4.71	.908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 수행	장안구	160	4.66	.984	.902	.440
		권선구	169	4.80	.791		
		팔달구	101	4.74	.716		
		영통구	170	4.75	.651		
		전체	600	4.74	.801		

## 2) 거주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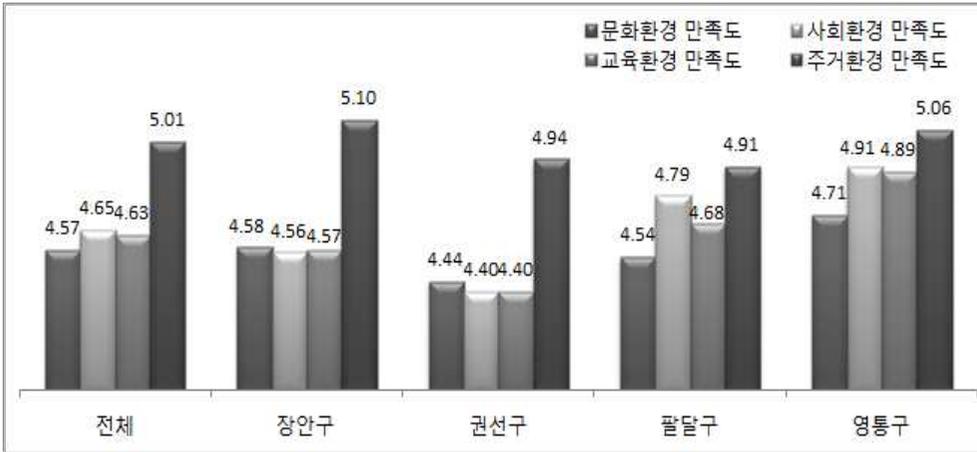
수원시민이 느끼는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은 총 4개 수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거주지역의 문화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측정하였고, 4개 영역의 평균값으로 '거주환경 만족도'를 구성하였다.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수원시민 전체 평균이 4.72점이며,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와 '권선구'의 '거주환경 만족도'가 각각 4.89점, 4.55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4〉 거주환경 만족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거주환경 중에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안구'와 '권선구'의 거주환경 만족도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팔달구'와 '영통구'가 유사한데 전자는 주거환경 만족도 이외의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자는 교육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에서 영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실제 문화 환경이 좋은 만큼 기대하는 정도의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5〉 세부영역별 거주환경 만족도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통계검증을 수행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영역들과 거주환경 만족도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지역별 거주환경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거주환경 만족도	장안구	160	4.70ab	.625	8.445	.000	
	권선구	169	4.55a	.730			
	팔달구	101	4.73ab	.623			
	영통구	170	4.89b	.560			
	전체	600	4.72	.651			
세 부 요 인	거주지역의 문화환경 만족도	장안구	160	4.58ab	.805	3.372	.018
		권선구	169	4.44a	.865		
		팔달구	101	4.54ab	.728		
		영통구	170	4.71b	.700		
		전체	600	4.57	.787		
	거주지역의 사회환경 만족도	장안구	160	4.56ab	.963	10.186	.000
		권선구	169	4.40a	1.019		
		팔달구	101	4.79bc	.804		
		영통구	170	4.91c	.842		
		전체	600	4.65	.943		
	거주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장안구	160	4.57a	.915	8.863	.000
		권선구	169	4.40a	.978		
		팔달구	101	4.68ab	.824		
		영통구	170	4.89b	.843		
		전체	600	4.63	.917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장안구	160	5.10	.856	1.724	.161
		권선구	169	4.94	.785		
		팔달구	101	4.91	.861		
		영통구	170	5.06	.805		
		전체	600	5.01	.824		

## 제3절 지역 정체성

### 1. 도시이미지 인식

도시에 대해 느끼는 감정변인인 ‘도시이미지’는 의미분화척도를 사용하여 수원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한 것인데,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측정된다. 즉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수동적이다-능동적이다’, ‘차갑다-따뜻하다’, ‘생기없다-활기차다’, ‘더럽다-깨끗하다’로 구성된다.

수원시민의 ‘도시이미지’는 전체 평균 5.17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통구’가 5.29점, ‘권선구’가 5.18점, ‘장안구’가 5.17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팔달구’의 경우는 4.92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원시에 대한 주관적 느낌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6〉 도시이미지

지역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도시이미지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팔달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수원시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은 편이며, 다른 지역과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이 분류될 정도로 지역별 차이가 있는 의미분화척도는 ‘수동적이다-능동적이다’, ‘생기없다-활기차다’, ‘더럽다-깨끗하다’가 해당되며, 모든 세부영역에서 ‘팔달구’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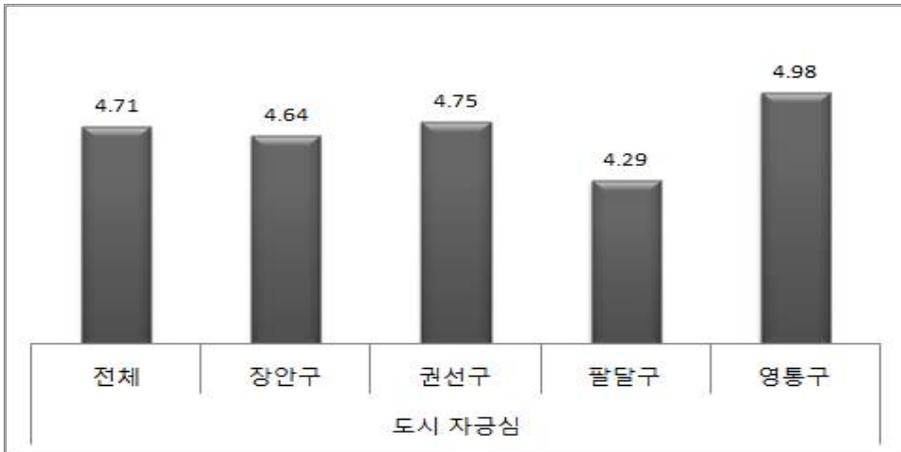
〈표 3-30〉 지역별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도시이미지	장안구	160	5.17b	.656	6.741	.000	
	권선구	169	5.18b	.706			
	팔달구	101	4.92a	.599			
	영통구	170	5.29b	.652			
	전체	600	5.17	.670			
세 부 요 인	수원시 이미지1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장안구	160	5.06	.859	3.410	.017
		권선구	169	5.22	.738		
		팔달구	101	4.99	.656		
		영통구	170	5.24	.796		
		전체	600	5.15	.781		
	수원시 이미지2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장안구	160	5.11ab	.971	5.664	.001
		권선구	169	5.24b	.903		
		팔달구	101	4.84a	.914		
		영통구	170	5.29b	.907		
		전체	600	5.15	.935		
	수원시 이미지3 (차갑다 -따뜻하다)	장안구	160	5.39	1.004	2.750	.042
		권선구	169	5.12	1.106		
		팔달구	101	5.10	.854		
		영통구	170	5.18	.963		
		전체	600	5.21	1.004		
	수원시 이미지4 (생기없다 -활기차다)	장안구	160	5.09ab	.950	6.449	.000
		권선구	169	5.36bc	.849		
		팔달구	101	5.03a	.780		
		영통구	170	5.41c	.900		
		전체	600	5.25	.893		
수원시 이미지5 (더럽다 -깨끗하다)	장안구	160	5.17bc	.826	13.465	.000	
	권선구	169	4.98b	1.112			
	팔달구	101	4.64a	.782			
	영통구	170	5.35c	.879			
	전체	600	5.08	.952			

## 2. 도시 자긍심

수원시에 대한 자긍심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수원시민의 자부심 정도’, ‘수원시의 도시수준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변인의 평균으로 수원시의 ‘도시만족도’ 변인을 생성하였다.

수원시민의 ‘도시만족도’는 전체 평균 4.71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는데, ‘영통구’의 경우가 평균 4.9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팔달구’는 4.2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도시자긍심

이원변량분석 결과, 도시자긍심에 교육수준과 거주지역, 그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주효과는 없지만 거주지역의 주효과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1〉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금심 평균(표준편차)

교육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고등학교 미만	장안구	4.65	0.56	26
	권선구	4.97	1.05	12
	팔달구	3.80	0.42	10
	영통구	5.10	0.65	10
	합계	4.65	0.79	58
고졸	장안구	4.76	0.85	57
	권선구	4.76	0.73	61
	팔달구	4.65	0.85	38
	영통구	4.86	0.74	64
	합계	4.77	0.79	220
초대졸	장안구	4.72	0.88	32
	권선구	4.87	0.69	39
	팔달구	4.02	1.18	27
	영통구	5.03	0.53	31
	합계	4.70	0.90	129
대졸 이상	장안구	4.43	0.88	45
	권선구	4.61	0.77	57
	팔달구	4.24	0.89	26
	영통구	5.05	0.64	65
	합계	4.66	0.82	193
합계	장안구	4.64	0.83	160
	권선구	4.75	0.76	169
	팔달구	4.29	0.97	101
	영통구	4.98	0.66	170
	합계	4.71	0.82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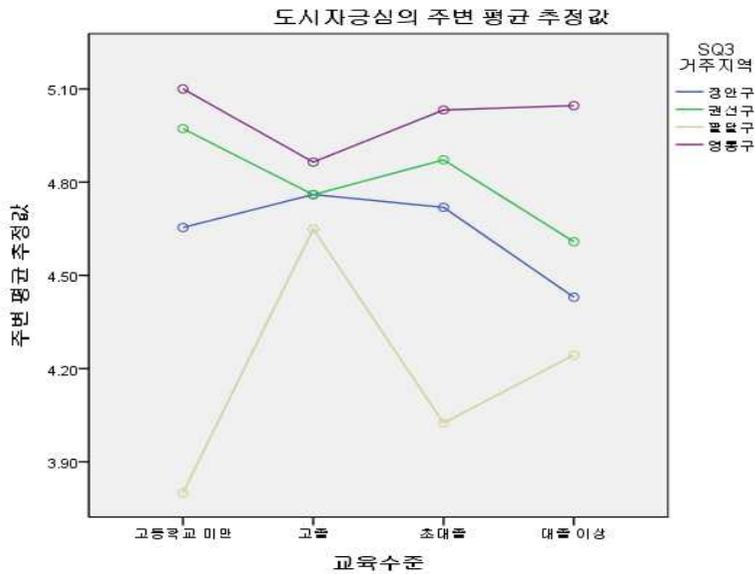
〈표 3-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금심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46.725a	15	3.115	5.066	.000	.115
절편	8997.034	1	8997.034	14631.986	.000	.962
교육수준	3.055	3	1.018	1.656	.175	.008
거주지역	32.510	3	10.837	17.624	.000	.083
교육수준 * 거주지역	13.998	9	1.555	2.529	.008	.038
오차	359.095	584	.615			
합계	13710.000	600				
수정 합계	405.819	599				

a. R 제곱 = .115 (수정된 R 제곱 = .09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팔달구’의 경우는 모든 학력집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자긍심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등학교 미만’과 ‘초대졸’의 경우는 그 격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팔달구’ 중에서도 ‘고졸’의 학력집단에 속한 수원시민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가장 근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권선구’와 ‘장안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경우 도시자긍심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졸 이상’일 때 도시자긍심이 높아지는 ‘영통구’와 ‘팔달구’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그림 3-3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도시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금심 평균(표준편차)

소득수준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N
300만원 미만	장안구	4.59	0.72	41
	권선구	4.86	0.97	39
	팔달구	4.32	1.01	23
	영통구	4.83	0.72	30
	합계	4.68	0.87	1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장안구	4.54	0.79	72
	권선구	4.77	0.70	81
	팔달구	3.97	0.92	42
	영통구	4.98	0.70	87
	합계	4.66	0.83	282
500만원 이상	장안구	4.84	0.95	47
	권선구	4.62	0.67	49
	팔달구	4.66	0.89	36
	영통구	5.05	0.55	53
	합계	4.81	0.78	185
합계	장안구	4.64	0.83	160
	권선구	4.75	0.76	169
	팔달구	4.29	0.97	101
	영통구	4.98	0.66	170
	합계	4.71	0.82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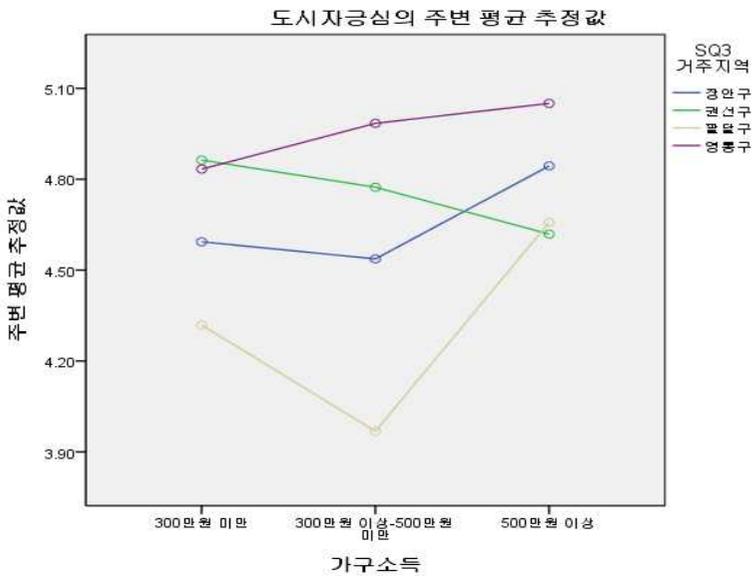
〈표 3-34〉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금심 이원 변량분석표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45.088a	11	4.099	6.681	.000	.111
절편	11350.624	1	11350.624	18501.753	.000	.969
소득수준	5.495	2	2.748	4.479	.012	.015
거주지역	23.990	3	7.997	13.035	.000	.062
소득수준 * 거주지역	10.897	6	1.816	2.961	.007	.029
오차	360.732	588	.613			
합계	13710.000	600				
수정 합계	405.819	599				

a. R 제곱 = .111 (수정된 R 제곱 = .094)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도시자공심이 가장 낮은 ‘팔달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에 속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자공심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선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자공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3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자공심이 가장 높는데, 결국 ‘500만원 이상’ 소득집단의 경우는 ‘팔달구’의 경우보다도 도시자공심이 낮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도시자공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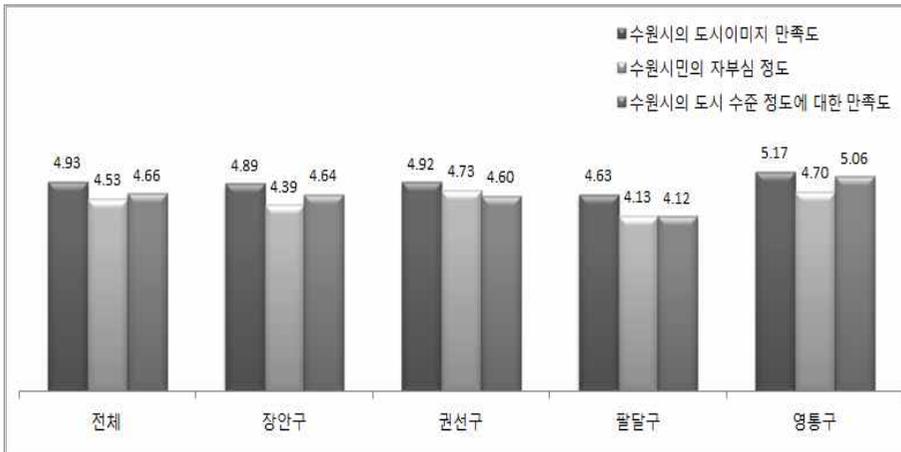


〈그림 3-39〉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공심

수원시민들이 갖는 도시자긍심을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팔달구’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영통구’의 경우 도시이미지에 대한 만족과 도시수준 정도에 대한 만족이 평균 5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이고 있고, 수원시민으로의 자부심 정도도 ‘권선구’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인 도시자긍심의 평균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안구’의 경우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만족이나 도시수준 정도에 대한 만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민으로의 자부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영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역별 도시자긍심에 대한 분산분석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팔달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세부영역별 도시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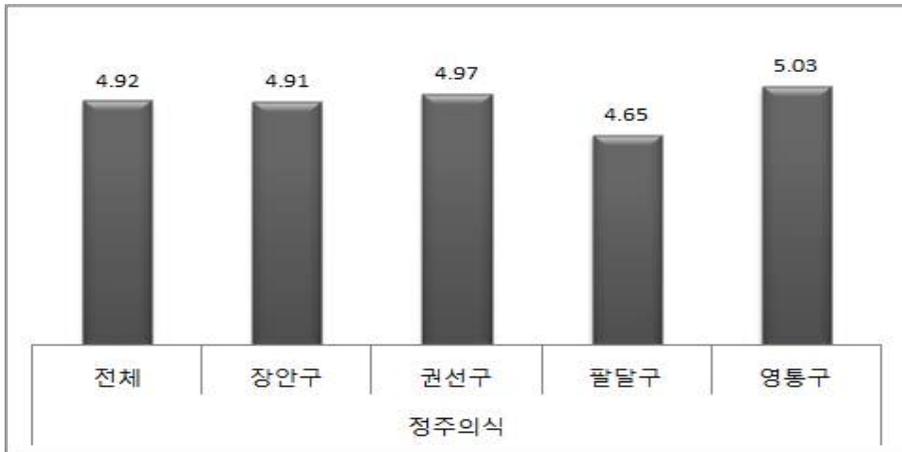
〈표 3-35〉 지역별 도시 자긍심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value	p	
도시 자긍심	장안구	160	4.64b	.830	16.294	.000	
	권선구	169	4.75bc	.764			
	팔달구	101	4.29a	.968			
	영통구	170	4.98c	.662			
	전체	600	4.71	.823			
세부요인	수원시의 도시이미지 만족도	장안구	160	4.89ab	1.028	7.770	.000
		권선구	169	4.92ab	.812		
		팔달구	101	4.63a	1.007		
		영통구	170	5.17b	.792		
		전체	600	4.93	.918		
	수원시민의 자부심 정도	장안구	160	4.39ab	1.139	10.007	.000
		권선구	169	4.73b	.898		
		팔달구	101	4.13a	1.101		
		영통구	170	4.70b	.935		
		전체	600	4.53	1.035		
	수원시의 도시 수준 정도에 대한 만족도	장안구	160	4.64b	.980	19.014	.000
		권선구	169	4.60b	1.025		
		팔달구	101	4.12a	1.202		
		영통구	170	5.06c	.885		
		전체	600	4.66	1.053		

### 3. 정주의식

수원시민의 ‘정주의식’은 수원시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지’의 측면에서 채택한 변인으로, 3가지의 하부영역인 ‘수원시 거주 지속의향’, ‘수원시 지인 추천의향’, ‘수원시 재이사 의향’으로 측정되었다.

수원시민의 ‘정주의식’은 전체 평균이 4.92점으로 보통 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정주의식 수준을 보인다. 지역별로 평균차이 검증을 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영통구’의 경우가 평균 5.03점으로 정주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의 경우는 평균 4.65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정주의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팔달구’의 경우 수원시와의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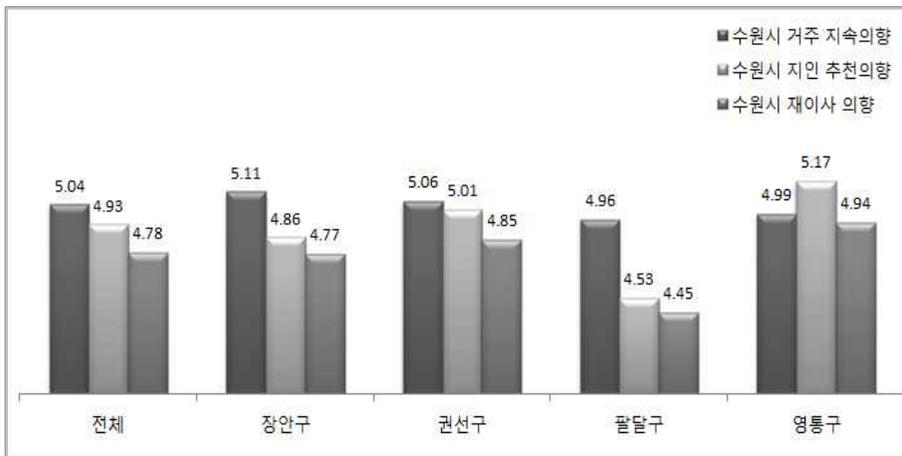


〈그림 3-41〉 정주의식

‘정주의식’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에 10년 뒤에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장안구’의 경우 5.11점으로 가장 높은데, 가장 낮은 ‘팔달구’의 경우도 4.96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지인에게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영통구’가 평균 5.17점으로 가장 높고, ‘팔달구’가 4.53점으로 가장 낮았다. 마

지막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수원시에 다시 이사 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통구’가 4.94점으로 가장 높고, ‘팔달구’가 4.4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의식에 있어서도 도시자궁심과 마찬가지로 ‘팔달구’가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세부영역별 정주의식

지역별 정주의식에 대한 분산분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원시 거주 지속의향’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시 지인 추천의향’과 ‘수원시 재이사 의향’은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재이사 의향’은 ‘팔달구’만이 다른 지역들과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경우는 한 번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6〉 지역별 정주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	
정주의식	장안구	160	4.91ab	.927	5.030	.002	
	권선구	169	4.97b	.726			
	팔달구	101	4.65a	.738			
	영통구	170	5.03b	.847			
	전체	600	4.92	.829			
세부요인	수원시 거주 지속의향	장안구	160	5.11	1.165	.565	.638
		권선구	169	5.06	.924		
		팔달구	101	4.96	1.086		
		영통구	170	4.99	1.063		
		전체	600	5.04	1.058		
	수원시 지인 추천의향	장안구	160	4.86ab	.983	11.276	.000
		권선구	169	5.01bc	.791		
		팔달구	101	4.53a	.965		
		영통구	170	5.17c	.884		
		전체	600	4.93	.924		
	수원시 재이사 의향	장안구	160	4.77b	1.065	5.880	.001
		권선구	169	4.85b	.873		
팔달구		101	4.45a	.818			
영통구		170	4.94b	1.004			
전체		600	4.78	.968			

## 제4장

##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제3절 정책적 제언



# 제4장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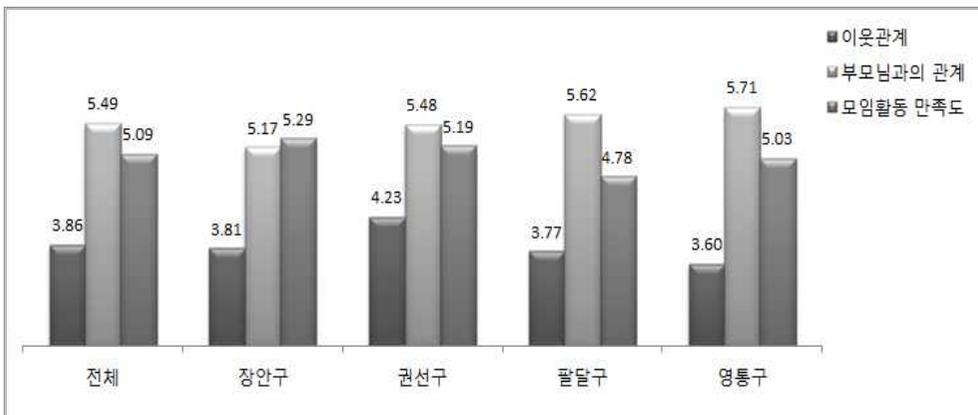
## 제1절 요약

### 1. 사회문화적 특성

#### 1)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수원시민의 ‘이웃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임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웃관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원시민에게 ‘부모님과의 관계’와 ‘모임활동’은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안구’와 ‘권선구’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모임활동 만족 정도가 유사한데 ‘팔달구’와 ‘영통구’는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는 높으나, 모임활동에 대한 만족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팔달구’와 ‘영통구’는 상대적으로 가족 중심형 지역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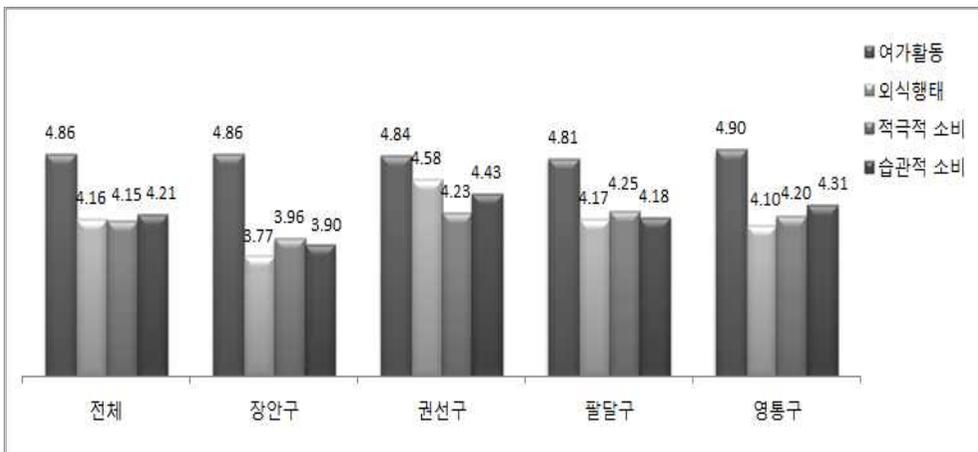


〈그림 4-1〉 사회적 관계

## 2) 여가 및 소비

수원시민들은 외식과 소비에 비해 여가활동 영역에 대해 더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내는데, 그 중 ‘권선구’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모든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장안구’는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식과 소비의 행태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행태가 ‘장안구’와 ‘팔달구’의 경우는 습관적 소비보다 적극적인 소비행태에 더 가까운 편이며, ‘권선구’와 ‘영통구’는 습관적 소비행태의 모습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상은 ‘장안구’와 ‘팔달구’에 비해 ‘권선구’와 ‘영통구’가 더 빈번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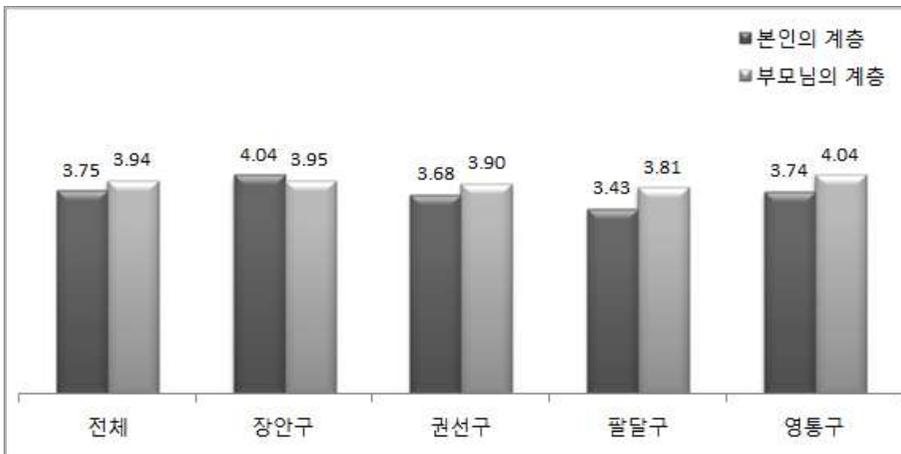


〈그림 4-2〉 여가 및 소비

### 3) 계층 의식

수원시민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계층보다 부모님의 계층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장안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부모님의 계층보다 본인의 계층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도 아니며, 부모와 본인의 계층 차이를 가장 덜 느끼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팔달구’의 경우는 본인의 계층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보다 부모님의 계층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영통구’의 경우가 부모님의 계층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인데, 본인의 계층도 ‘장안구’를 제외하고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계층 의식

## 2. 삶의 질

‘삶의 질’은 크게 개인적 영역의 ‘상태수준 만족도’, ‘생활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와 물리적 환경 영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전체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상태수준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여가생활 만족도’와 ‘직장생활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원시의 전체적인 여가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수원시 전체 삶의 질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 즉,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이 개인 영역의 삶의 질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각 지역별로 ‘삶의 질’을 살펴보면, ‘영통구’와 ‘장안구’가 수원시 전체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권선구’는 다소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팔달구’의 경우는 ‘생활만족도’와 ‘직장생활 만족도’가 수원시 전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여가생활 만족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영통구’의 경우는 개인적 영역 중 ‘생활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는 수원시 전체에 비해 평균이 다소 낮지만, ‘상태수준 만족도’와 물리적 환경 영역인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는 수원시 전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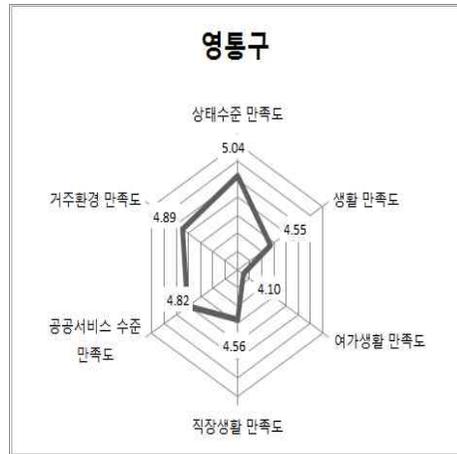
〈그림 4-5〉 장안구 삶의 질



〈그림 4-6〉 권선구 삶의 질



〈그림 4-7〉 팔달구 삶의 질



〈그림 4-8〉 영통구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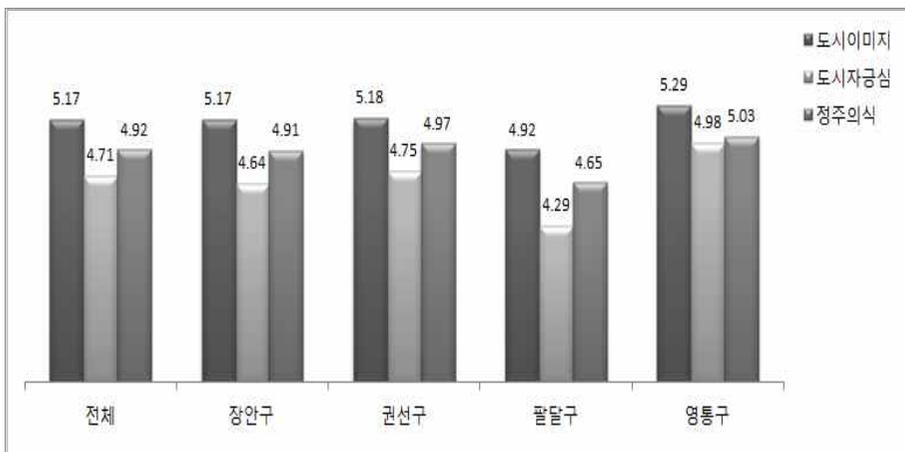
### 3. 지역 정체성

수원시민의 ‘지역 정체성’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영통구’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이며, ‘팔달구’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도시 이미지’는 ‘도시 자긍심’과 ‘정주의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팔달구’를 제외하고는 5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어, 도시에 대해 갖는 주관적 느낌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도시 자긍심’의 경우는 ‘도시 이미지’나 ‘정주의식’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영통구’의 경우는 ‘도시 자긍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통구’와 ‘팔달구’의 ‘지역 정체성’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유추해 보자면, 결국 ‘삶의 질’의 차이만이 두 지역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영통구’의 경우는 개인적 영역의 ‘삶의 질’은 다소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이 수원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반면, ‘팔달구’의 ‘도시 애호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가생활 만족도’와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저평가된 것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9〉 지역 정체성

## 제2절 결론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수원시민들이 삶의 질과 수원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활 실태와 그에 대한 만족, 그리고 도시 환경에 대한 만족들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에 대한 생각을 추론하곤 하였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시민들이 얼마나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정주 지속성을 높이는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정주의식에 대해 논할 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해 갖는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이미지와 도시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에 대해 함께 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도시로 유입될 수는 있으나 유입된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함께 개입되며, 그 의지에는 환경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도시 전체에 대한 파악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정책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접근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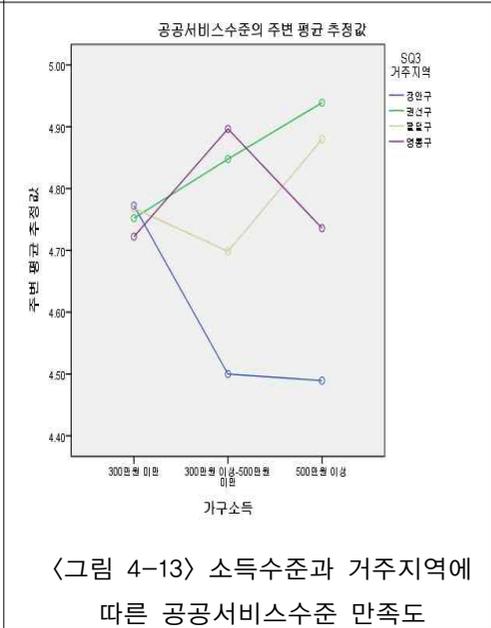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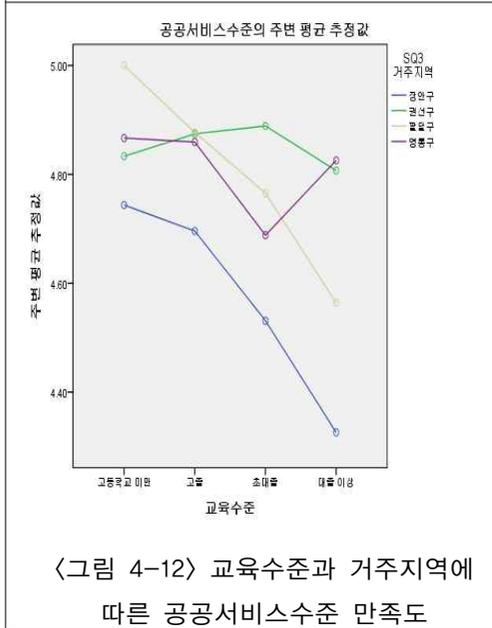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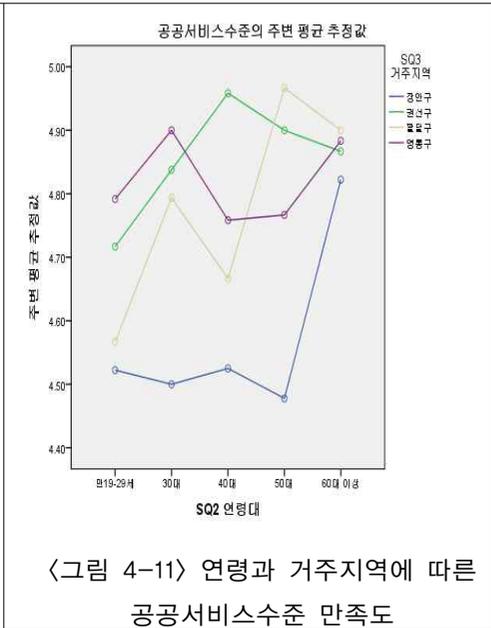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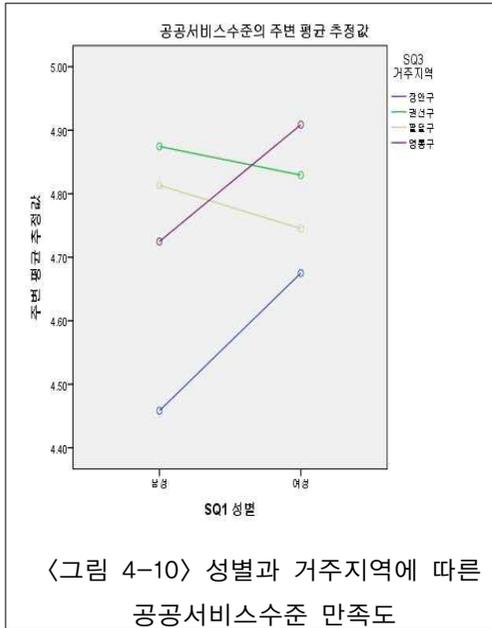
### 1. 장안구

장안구의 경우는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자긍심과 정주의식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나 수원시에 갖고 있는 주관적인 도시 이미지는 수원시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 영역

에 대해 만족 수준이 낮은 편이다. 즉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과 안전기관의 충분성의 인지 정도, 그리고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수행에 대해서도 모두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안전기관의 충분성 영역이었다. 따라서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경우는 안전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장안구는 공공서비스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수준 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과의 교차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공공서비스수준에 대한 만족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남성에게 비해 만족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는 장안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경우에도 상당히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 수준이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미만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공공서비스수준 만족이 가장 낮은 편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집단의 경우는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면, 만족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남성, 고학력,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원시민의 경우에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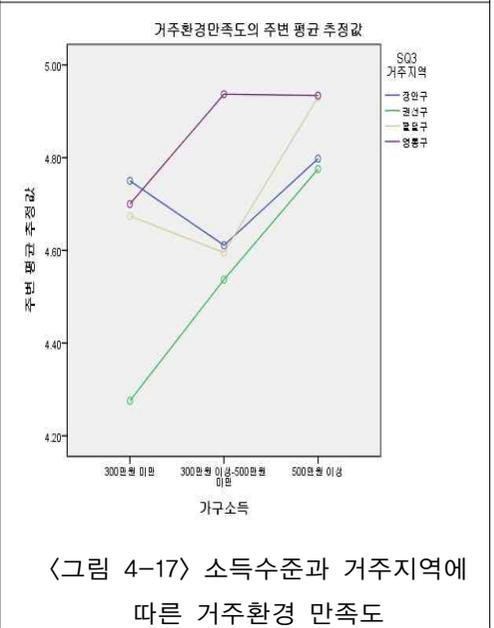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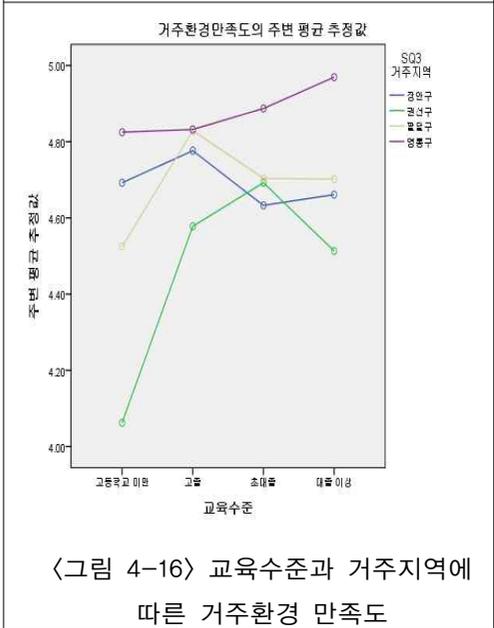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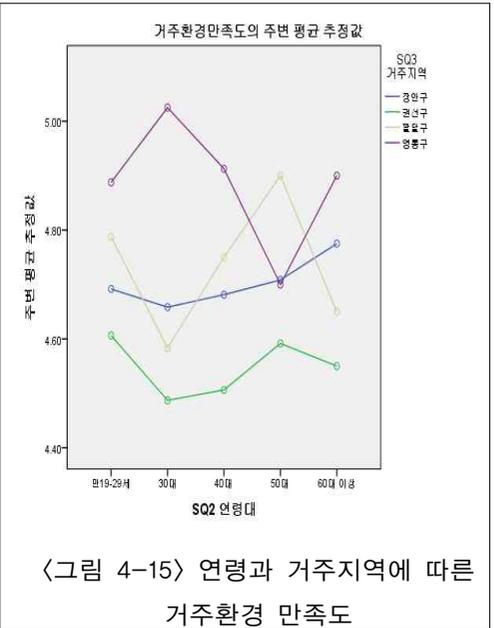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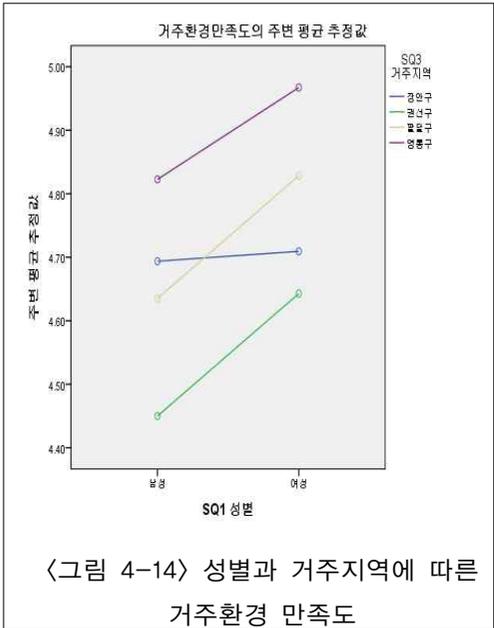


## 2. 권선구

권선구의 경우는 다른 삶의 질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편이며, 특히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문화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해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각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욕구 조사가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선구의 경우는 거주환경 만족도가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지역의 교차 그래프를 검토해보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특히 30대와 40대가 낮은 만족수준을 보인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장안구의 공공서비스수준 만족도는 보통 고학력의 고소득층이 불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권선구에서는 거주환경 만족에 대해 저학력, 저소득층의 만족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생활 영역이 다른 삶의 영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만족수준이 낮다는 점을 통해 실제 권선구의 저소득층의 경우에 거주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팔달구

팔달구의 경우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먼저 직장생활의 경우는 노동 강도와 업무내용,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생활 만족의 경우는 건강상태를 제외한 다른 세부영역들(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팔달구의 경우는 삶의 질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은 영역이 부재하다. 이는 팔달구 시민들의 도시 애호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자긍심, 그리고 정주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팔달구의 경우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불만족보다도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으로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제고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도시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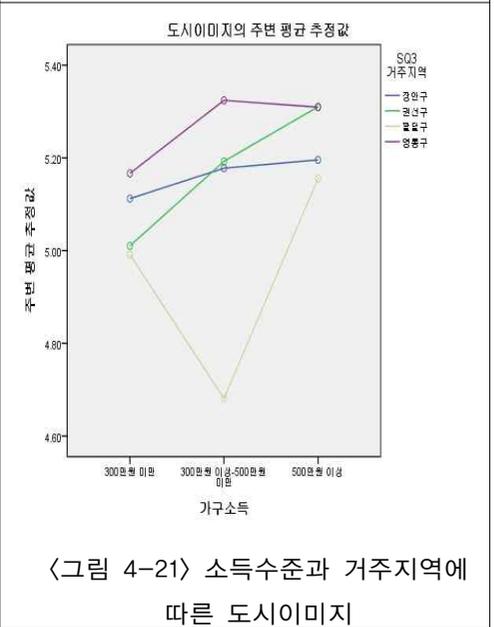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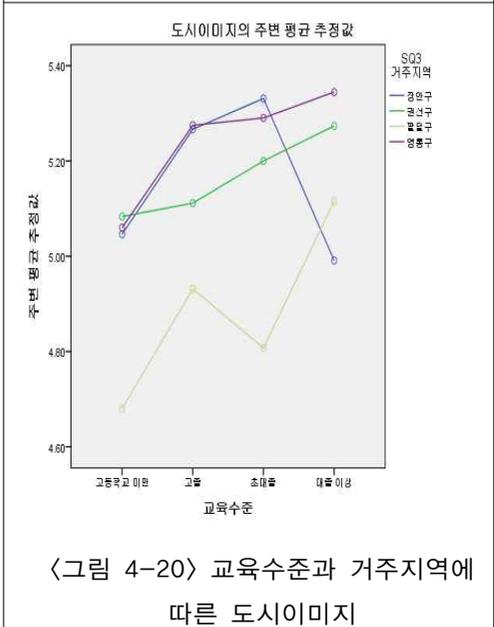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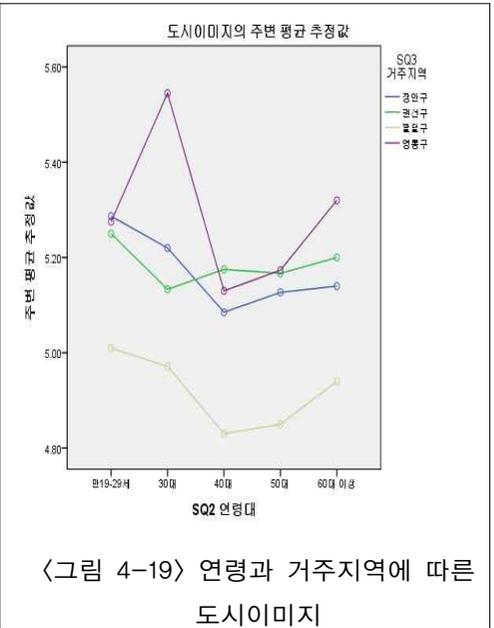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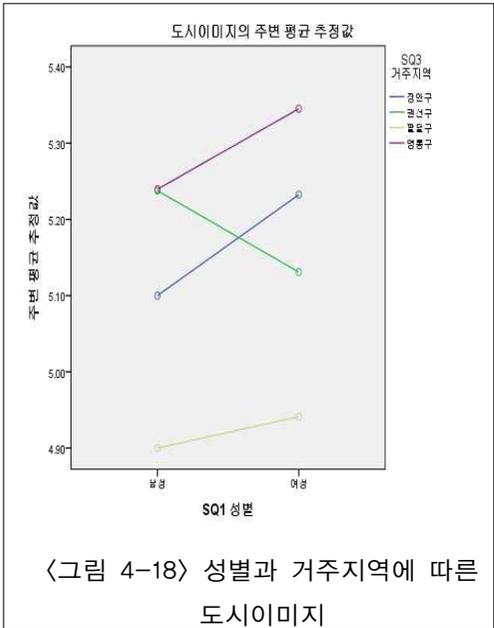
팔달구는 전반적으로 만족수준이 낮음과 동시에 도시에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편으로 도시에호도 변수들(도시이미지, 도시자긍심, 정주의식)의 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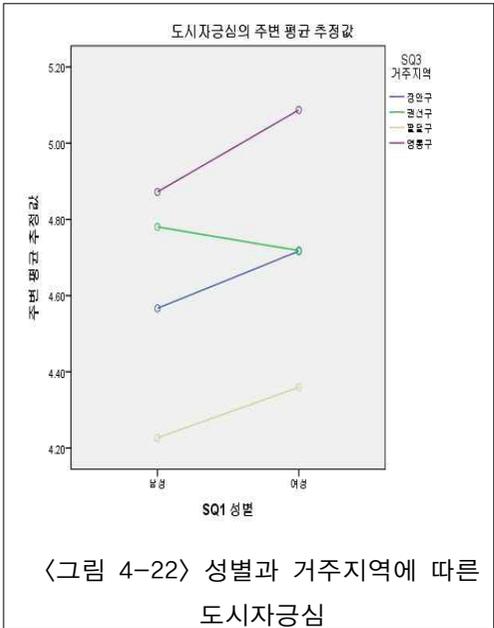
먼저 도시이미지의 교차그래프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원시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저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도시이미지 평가가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고, 대졸이상의 학력수준 집단과 소득수준이 양극단(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일 때는 수원시에 대한 도시이미지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인 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대졸이상 학력수준의 집단에 비해 팔달구의 대졸 이상 학력수준 집단이 도시이미지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수준 집단, 그리고 소득수준이 중간 정도인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가 수원시에 대한 도시이미지 평가가 부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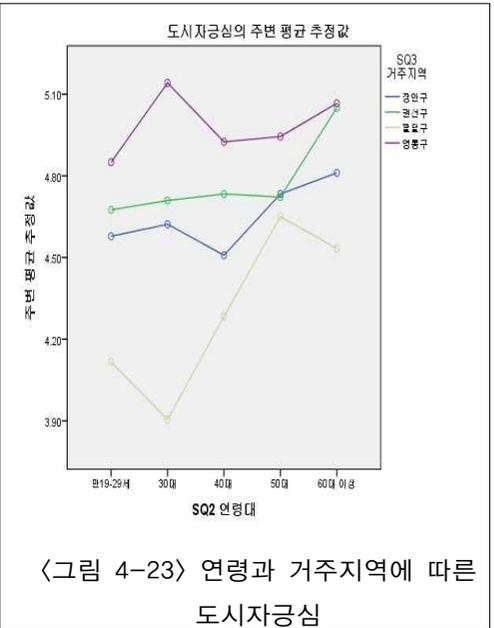
도시자긍심의 경우도 도시이미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연령이 50대, 60대인 경우는 타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 30대의 경우는 그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특히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와의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자긍심은 수원시에 대한 감정이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주하고 있는 팔달구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정도에 따라서 수원시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자긍심을 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고등학교 미만과 초대졸, 그리고 대졸이상의 경우 고졸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여 도시 자긍심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주의식 영역도 다른 도시애호도 변수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층, 대졸이상의 고학력,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정주의식이 약한 데, 40대 이상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통구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가 정주의식이 높는데 비해 팔달구의 경우는 젊은 층이 정주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영통구의 경우는 결혼 후 새로운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정착하여 정주의식이 높은 반면, 팔달구의 청년층은 현재 미혼상태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수원에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팔달구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원시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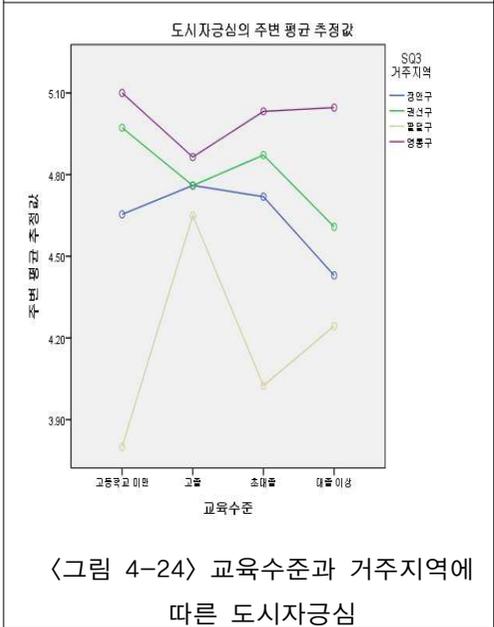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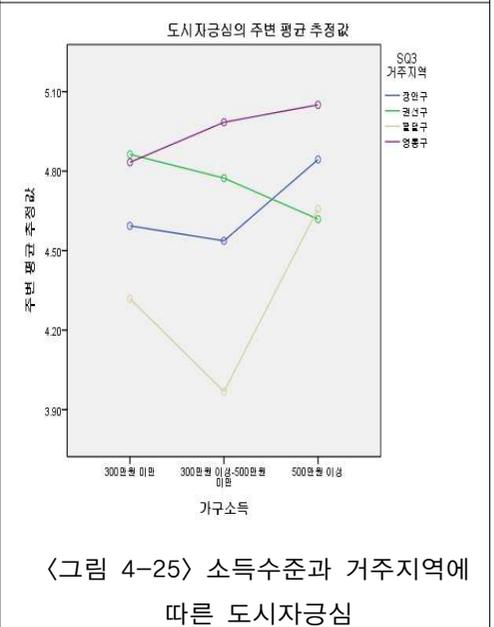
〈그림 4-22〉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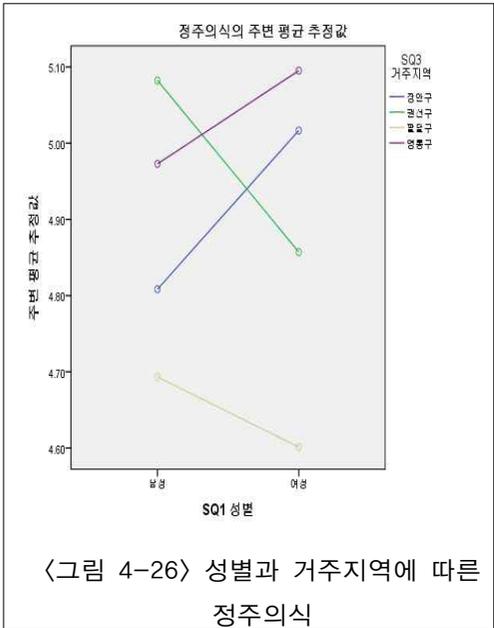
〈그림 4-23〉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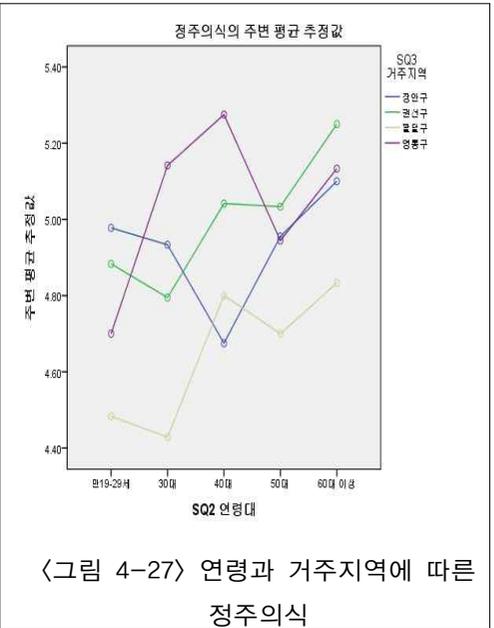
〈그림 4-24〉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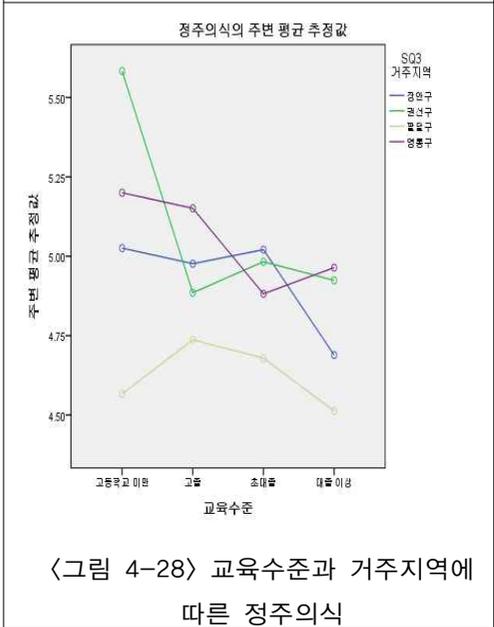
〈그림 4-25〉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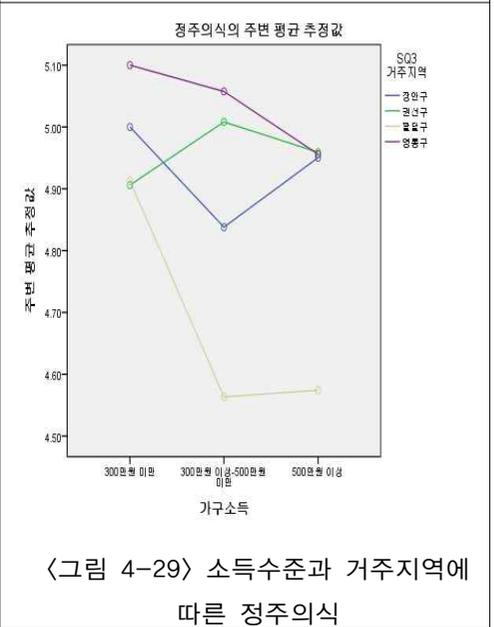
〈그림 4-26〉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그림 4-27〉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그림 4-28〉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그림 4-29〉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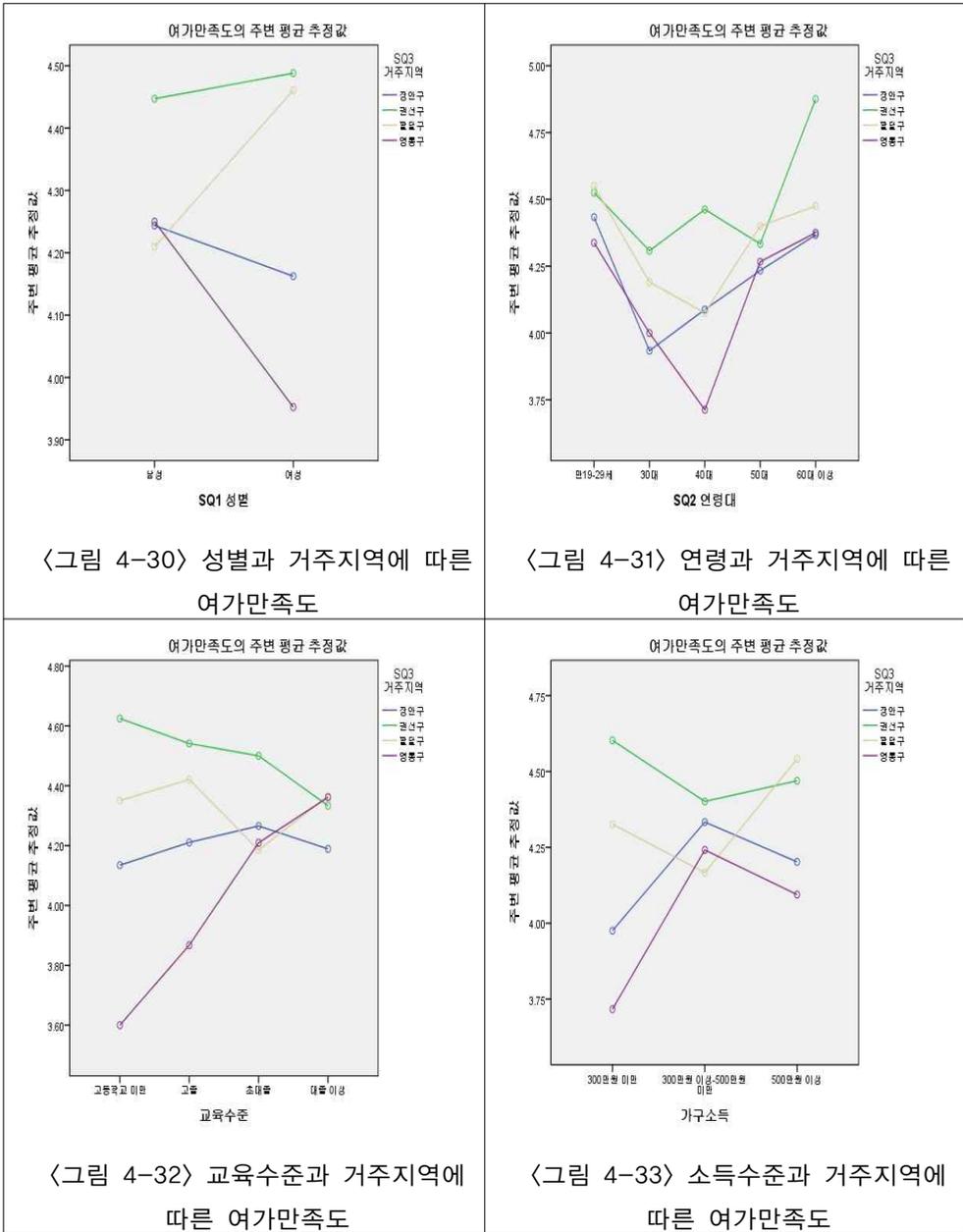
## 4. 영통구

영통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태수준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과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자긍심, 그리고 정주의식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이 수원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생활 만족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은 수원시 전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 환경 여건이 객관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으나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수준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영통구의 연령구성이 다소 낮은 점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기인하는 결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영통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가만족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와 지역의 교차그래프를 확인해봄으로써 영통구의 여가만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른 지역과의 여가만족도 차이는 여성의 만족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선구와 팔달구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장안구와 영통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영통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여가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40대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학력, 저소득층의 경우에 여가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영통구의 낮은 여가만족도는 기대불일치 보다는 영통구 내 저소득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0〉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그림 4-31〉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그림 4-32〉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그림 4-33〉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만족도

### 제3절 정책적 제언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 분류를 통해 살펴본 것은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원의 단일한 특성보다는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실제로 각 지역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장안구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가 우선시되며, 특히 남성, 고학력, 고소득층의 만족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세부영역으로는 안전기관에 대한 충분정도에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선구의 경우는 거주환경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만족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질적인 거주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팔달구는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만족하는 영역이 부재하기도 했고, 불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에호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불만족하는 편이다. 특히 도시자공심이나 정주의식이 젊은층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팔달구에 거주하는 수원의 젊은 재원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통구는 전반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과 도시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여가만족도 만큼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여가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학력, 고소득 집단의 경우는 그렇게 여가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낮은 여가만족도는 여가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대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지역 내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통 내 저소득층의 여가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에 대한 애착,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원시민들의 생각을 수집하는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 실제 정책적 효과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지적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상균(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나남출판.  
손장권 외(2003),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Bourdieu, Pierre(1979),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최종철 옮김, 2005), 새물결.  
Putnam, Robert D.(2000), 나홀로 불링(정승현 옮김, 2009), 페이퍼로드  
Veblen, Thorstein(1899), 유한계급론(김성균 옮김, 2005). 우물이 있는 집  
Zukin, Sharon(1991),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 학술지/학위논문

- 고민석(2005), 도시이미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장소 마케팅 개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공선영(2009), 소비분화와 소비잔원의 효과, 문화경제연구 12(2): 115~141.  
김덕현 외(2009), 도시이미지의 구조모형과 도시 간 비교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2(4): 1825~1844.  
송건섭 외(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7.  
이경태·권영주(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1): 97-132.  
이영균·김동규(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이영원(2010),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251~277.

- 이영원(2013), 지역 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 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636~662
- 이영원(2014), 지역 정체성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4(2): 295~321.
- 이희창·박희봉·정우일(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13(3): 147-169.
- 임근식(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전성표(1998), 산업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1-128.
- 정만모(2008), 신도시 도시이미지의 형성요소가 도시환경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분당,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명래(1996), 지역정체성과 지역운동, 공간과 사회 7: 91~108.
- Bourdieu, Pierre(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ohn G. Richardson(ed.) Greenwood Press.
-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Lake, Ronald La Due and Robert Huckfeldt(1998),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567~584.
- Wirth, Louis(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 ■ 보고서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 부 록

1.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 1.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정주 의식	도시 이미지	도시 자긍심	상태 수준 만족	생활 만족	여가 만족	직장 생활 만족	공공 서비스 만족	거주 환경 만족	이웃 관계	부모 관계	모임 활동 만족	계층 의식 (본인)	여가 활동	외식 행태	적극적 소비	습관적 소비
정주의식																	
도시이미지	.445***																
도시자긍심	.537***	.544***															
상태수준 만족	.020	.334***	.159***														
생활 만족	-.012	.205***	.057	.497***													
여가생활 만족	.111**	.244***	.228***	.251***	.162***												
직장생활 만족	.208***	.359***	.308***	.351***	.408***	.290***											
공공서비스 만족	.342***	.430***	.403***	.175***	.214***	.174***	.300***										
거주환경 만족	.234***	.396***	.389***	.235***	.134***	.146***	.192***	.448***									
이웃관계	.137***	.218***	.207***	.141***	.065	.162***	.283***	.223***	.136***								
부모와의 관계	.088	.206***	.039	.208***	.294***	.108*	.189***	.209***	.061	.072							
모임활동 만족	.201***	.289***	.218***	.237***	.168***	.156**	.331***	.199***	.177***	.215***	.211***						
계층의식(본인)	.046	.243***	.188***	.339***	.278***	.191***	.325***	.118**	.220***	.123**	.035	.213***					
여가활동	.109**	.160***	.192***	.232***	.296***	.335***	.176***	.121**	.151***	.014	.074	.140**	.120**				
외식행태	.053	.149***	.122**	.324***	.293***	.291***	.305***	.197***	.191***	.210***	.074	.099	.266***	.211***			
적극적 소비	-.210***	.140***	.032	.328***	.248***	.311***	.203***	.120**	.122**	.049	.110*	-.022	.207***	.465***	.230***		
습관적 소비	-.132**	.169***	.058	.301***	.262***	.246***	.169***	.145***	.122**	.072	.151***	.066	.182***	.500***	.225***	.728***	

\*p<.05, \*\*p<.01, \*\*\*p<.001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의식 조사〉를 활용한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정체성 연구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11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50-9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